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7520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교원 부문

TEACHER

금상

걱정하지마. 네 빵도 결국에는 맛있어질 거야 / 김병두 • 충북 봉명고 ..... 06

은상

위기 탈출 일반고 / 이명형 • 울산 남목고 ..... 10

30년을 향한 첫 걸음의 시작 / 박민호 • 강원 영월고 ..... 14

동상

학생을 통해 배우고, 학생을 통해 가르치다 / 김태형 • 대구 송현여고 ..... 19

우리 논문 한번 써볼까? / 조선아 • 서울 동명여고 ..... 23

나와 너의 자리 찾기 / 신범철 • 대구 신명고 ..... 27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찾기! / 이정호 • 대전 대전성모여고 ..... 32

학생 부문

STUDENTS

금상

인문사회 거점학교에서 찾은 나의 길 / 이다인 • 전북 성심여고 ..... 37

은상

막연한 바람을 현실적인 원함으로 만들어 준 팔마유네스코 동아리 활동 / 성혜주 • 전남 순천팔마고 ..... 41

절망 끝에서 발견한 나의 꿈, 나의 비전! / 홍은기 • 충남 목천고 ..... 45

내 꿈의 도약대. 진로집중교육과정 / 이주영 • 울산 남목고 ..... 49

나도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 강한솔 • 경기 진건고 ..... 53

동상

비전(碑前)에서비전(vision)을 꿈꾸다 / 황정현 • 경기 비전고 ..... 57

열 번의 수업으로 달라진 나 / 김예지 • 대구 경화여고 ..... 61

꿈의 마중물이 되어 준 물리 R&E 프로젝트 학습 / 김승호 • 충남 공주시대부고 ..... 66

미술치료로 '나' 돌아보기 / 이인혜 • 대구 신명고 ..... 70

변화의 시작은 학교로부터 - '주간뉴스'와의 만남 / 정재욱 • 대구 협성고 ..... 74

꿈을 굽는 제빵사 / 이한솔 • 전북 유일여고 ..... 77

응급 구조사가 되기 위한 나만의 길 / 유건욱 • 대구 성서고 ..... 81

나드세상 / 배인지 • 대전 도안고 ..... 84





## 교육과정 다양화

### 진로집중 교육과정

• (교원 부문) 위기 탈출 일반고 .....	10
• (교원 부문)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찾기! .....	32
• (학생 부문) 내 꿈의 도약대. 진로집중교육과정 .....	49
• (학생 부문) 비전(碑前)에서비전(vision)을 꿈꾸다 .....	57

### 거점학교 운영

• (교원 부문) 학생을 통해 배우고, 학생을 통해 가르치다 .....	19
• (학생 부문) 인문사회 거점학교에서 찾은 나의 길 .....	37

## 진로진학 맞춤형 프로그램

• (교원 부문) 걱정하지마. 네 빵도 결국에는 맛있어질 거야 .....	06
• (교원 부문) 나와 너의 자리 찾기 .....	27
• (교원 부문)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찾기! .....	32
• (학생 부문) 막연한 바람을 현실적인 원함으로 만들어 준 팔마유네스코 동아리 활동 .....	41
• (학생 부문) 절망 끝에서 발견한 나의 꿈, 나의 비전! .....	45
• (학생 부문) 열 번의 수업으로 달라진 나 .....	61
• (학생 부문) 미술치료로 '나' 돌아보기 .....	70
• (학생 부문) 꿈을 굶는 제빵사 .....	77
• (학생 부문)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나만의 길 .....	81

## 학습 능력 제고 프로그램

• (교원 부문) 30년을 향한 첫걸음의 시작 .....	14
• (교원 부문) 우리 논문 한번 써볼까? .....	23
• (학생 부문) 나도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	53
• (학생 부문) 꿈의 마중물이 되어 준 물리 R&E 프로젝트 학습 .....	66
• (학생 부문) 변화의 시작은 학교로부터 - '주간뉴스'와의 만남 .....	74
• (학생 부문) 나드세상 .....	84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교원 부문

TEACHER





# 걱정하지만 네 빵도 결국에는 맛있어질 거야

김 병 두  
봉명고등학교

김 군은 오늘도 자고 있다. 어찌나 곤히 자는지 보고 있는 사람까지 하품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누군가 걱정하고 김 군의 하루 수면 시간을 측정해본다면 필시 24시간 중 20시간은 자지 않을까 싶다. 깨워도 깨워도 마치 조각상을 흥내라도 내듯 잔뜩 심각한 얼굴로 절대 움직이는 법이 없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아무것도 하기 싫단다. 단지 공부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하기 싫고, 운동장에 나가 뛰어 놀기도 싫고, 철저하게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하기 싫단다. 절정의 귀차니즘을 보여주는 김 군.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의 교실 현장에서 김 군은 그다지 특별한 아이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 대상을 김 군일 수도, 박 군일 수도, 이 양일 수도 있다. 단지 공부'만'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공부'도'하기 싫어하는 극단의 무기력함을 내뿜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절로 한숨부터 나온다. 자신의 삶에 있어 그 어느 시기보다 치열하게 갈등하고, 고민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역설적으로



철저하게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극히 잔잔한 파도에 작은 올림이라도 주고 싶었다. 일단 동기부터 만들어줘야 했다. 본인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주변에서 도와줘야 했다. 고민의 결과 전공인 국어와 진로를 결합한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마침 학교에서 실시한 학년별 MBTI



검사를 통해 개인 성격 유형별 관련 직업군을 정리하고, 동료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해당 직업과 관련한 도서 목록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16개 MBTI 성격 유형별 관련 직업군(의사, 건축가, 제과제빵사, 모델, 사진작가, 패션디자이너, 항공조종사 등)과 그에 대응하는 추천 도서 목록을 함께 제시할 수 있었다. 추천 도서는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 예산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우수학생 육성 선도학교 예산으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었다.

각 도서별로 ‘꿈꿈 읽기-깊이 읽기-함께 읽기’라는 3단계 진로 독서법을 새롭게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함께 읽기’활동이 인기가 좋았다. ‘함께 읽기’는 독서 활동의 범위를 해당 지역 사회와 관련한 실질적 직업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활동이었다. 예를 들어 제과제빵사의 경우 ‘함께 읽기’단계에서 “천안의 호두과자, 경주의 황남빵을 비롯하여 지역별로 대표 명물빵이 있다. 청주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직지빵이 있으나 그 인지도나 인기도는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직지빵이 전국 대표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라”라는 고등학생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였는데도 그 대답의 수준은 상당했다. 일단, 직지빵에 들어가는 보리라는 재료의 평범한 맛의 특성상 대중에게 어필할 수 없다고 보아 충북의 특산물을 활용해 맛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는 학생도 있었고, 판매 장소가 특정 중소 매장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금보다 대량 생산하여 슈퍼, 마트와 같은 불특정 매장으로 판매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학생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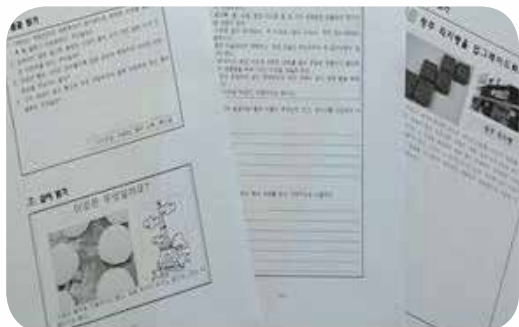


해당 도서의 독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스스로 찾아서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관련 도서, 만화, 영화, 드라마 목록을 추가 제시하였으며, 관련 자격증, 대학-학과 정보는 물론 학생이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 박람회, 지역 축제, 관련 기관, 체험학습장 등의 최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안내하였다. 그 결과 자신만의 빵 레시피를 들고 아침부터 찾아와 자랑하는 아이, 간밤에 계량 실패로 반죽이 타버려 멋쩍어하며 탄 빵을 건네는 아이들이 생겨났다. 평소 무기력하다고만 생각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주관이 있고, 철학이 있으며, 실천이 있었다.

그렇게 작년 한 해 동안 아이들과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해 본 결과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이에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 보고픈 욕심이 생겼다. 개인적 욕심을 발전시켜 '꿈이 이루어지는 곳, 봉명고등학교'라는 슬로건을 걸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인 일반고 특색 프로그램 운영 선도학교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제는 단순히 국어교사의 차원에서 독서 활동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꿈발표대회와 진로탐구대회를 기획하였고, 진로-진학 동아리를 통해 소식지도 제작하기로 하였으며, 1~2학년 대학 탐방 행사와 3학년 입시 박람회 방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일단 학생들의 현 실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야하겠기에 진로 의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꿈이 없다고 답한 학생이 절반에 달했고, 있다고 답한 나머지 절반도 본인의 의지가 아닌 부모, 주변인의 강요로 정해졌거나 단순히 대중매체의 유망 직업이라는 얘기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본인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한 결과 설정한 꿈이 아니기에 당연히 그 세부 전략을 구체화할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꿈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 대부분 그저 꿈이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일 뿐이었다.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바로 꿈발표대회를 공고함과 동시에 진로-진학 동아리 모집 공고를 내고 기다렸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꿈발표대회 현장은 본인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세부 전략을 발표하는



아이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으며, 애초에 하루로 예정되었던 대회 일정을 이틀로 나눠 진행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항공정비사가 꿈이라는 한 학생은 20년 뒤에 본인이 성공한 직업인이 되어 모교 후배들에게 직업인 특강을 왔다는 설정으로 발표를 능숙하게 진행하여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외교관이 꿈이라는 한 학생은 현 동북아 정세에 있어 가장 민감한



문제인 싸드(THAAD)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밝혀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호른연주자가 꿈이라는 학생은 직접 호른을 가져와 수준급의 실력을 뽐내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어리고 철이 없다고만 생각했던 학생들은 의외로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저마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의 성향을 SWOT 기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저마다의 진로장벽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고,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만의 세부 전략들에 대해 서로 자랑하고 응원해줬다. 대회라기보다 작은 꿈 축제에 가까웠다. 내가 아이들에 대해 평소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반성까지 들 정도였다.

진로-진학 동아리 아이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계열별로 입시 정보를 정리하여 소식지를 발간해보자는 제안에 입시 정보는 책자에 나와 있다며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 할 실질적인 내용들을 실어야 한다는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다. 계열별로 해당 학과에 진학한 선배들을 수소문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해당 학과의 연구실로 당차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따 온 아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관련 기관(국립외교원, 충북인문학연구소, 충북교육청 등)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정리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아직 1학기 진로 소식지도 편집중이며, 2학기에는 동일 진로를 가진 학생들끼리 팀을 조직하여 진로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 독서 활동 등을 겨루는 진로탐구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진로 소식지 2호도 발간 예정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았기에 걱정되지 않는다. ‘괜찮아,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대책 없고, 근거 없는 막무가내식 자신감을 믿기에 의심하지 않는다.

앞서 탄 빵을 건네던 그 아이에게 나는 선부른 위로를 건네려했었다. 뭐라 위로할까 고민하다 겨우 내 입이 떨어질 찰나 작은 반전이 일어났다. 탄 빵은 기념으로 가져왔으며, 밤새 몇 번의 실패 끝에 결국 성공했고 그 빵은 이미 아이들과 다 먹었다고 웃는 그 아이를 보며 깨달을 수 있었다. 맛있는 빵의 쫄깃함은 반죽을 치밀수록 더해지고, 깊은 풍미는 가만히 기다리는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지금 우리 아이들은 현실의 장벽에 수없이 좌절하며 자신을 치대고, 가치를 무한 배양하고 천천히 숙성시키는 발효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조그마한 탄 빵을 손에 들고 한없이 작아져가고 있을 아이들에게 응원의 말을 해주고 싶다.

**“걱정하지마. 네 빵도 결국에는 맛있어질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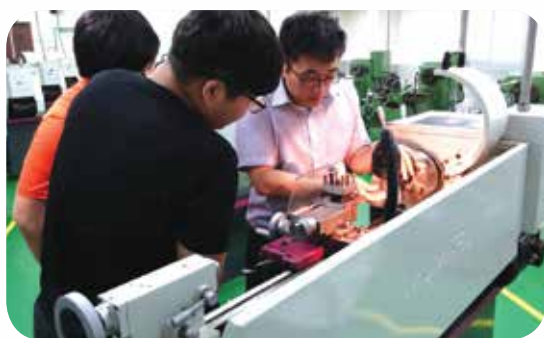
## 위기 탈출 일반고

이 명 형

남목고등학교

일반고의 위기. 일반고는 늪에 빠진 것처럼 서서히 위기에 빠지고 있었지만 늪에 빠지는 일반고도 그것을 지켜보는 누군가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며, 깊숙이 빠져가고 있었다. 일반고의 구성원이지만 점차 위기에 빠져가는 학교를 떠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무책임하게 떠나 새로운 학교인 남목고등학교로 오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나에게 내려진 특명은 일반고를 살리는 일이었다.

위기의 원인은 고등학교의 수직 계열화이다.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과학중점고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의 가장 하단에는 일반고가 있었다. 최근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정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했다가 탈락하여 오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별히 만들어진 학교를 특별하게 관리하다 보니 일반고가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하지만 일반고라는 명칭답게 지극히 일반적인 교육만 이루어져 왔다. 자신의 진로에 집중된 교육은 학교 밖에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학교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무너져갔다.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학교에서는 진로집중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였다. 설문 조사를 하니, 30명의



학생들이 전문계고등학교를 희망하여 지원했다가 탈락하여 온 학생이었다. 이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다른 일반고에 진학하였기에 학교 교육과정에 적응하기 힘들어 했다. 직업 교육과정은 이들을 ‘학교부적응’에서 ‘적응’으로 만들 새로운 희망이었다. 직업 교육과정에서 세부 전공을 조사하니 기계 14명, 조리 11명, 전기 4명, 건축 3명이 나왔다. 가사 실습실이 없었던 환경적인 요인으로 조리를 제외하고 기계, 전기, 건축을 묶어 ‘기술 심화 과정’이란 이름으로 학기당 3단위의 수업을 만들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 과정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지루한 이론 과목보다는 실습 위주의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무슨 실습 기계, 장비가 있겠는가. 인근의 전문계 학교 여러 곳에 실습실 사용을 문의하였지만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래저래 최대한으로 마련한 3백만원으로 실습 장비를 구입하였다. 마침 기술 선생님도 새로 오셔서 수업을 부탁하니 열정적으로 임하셨다.

학생들은 멀티탭 만들기, 주택평면도 만들기, 건축모형 만들기, 옥내배선 만들기 등의 실습 위주의 수업에 굉장한 흥미를 나타냈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정도의 실습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나는 평소 인문계 고3학생들의 직업위탁 교육을 담당하던 직업전문학교로 눈을 돌렸다. 여러 이유로 학기 중에는 진행이 어려워 방학 중에 특별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하루에 6시간, 9일, 총 54시간 동안 직업훈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고3 학생들을 위한 1년 위탁과정만 있었지, 방학을 이용한 고1~고2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을 제안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였다. 직업전문학교와 수차례의 협의 끝에 ‘기계설계 제작과정’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1, 2학년 학생 8명이 참여하였다.

여름 방학 방과후수업을 신청하지 않고 별다른 방학 계획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거듭하여 참여 동의를 받아냈다. 프로그램 첫날부터 결석하는 학생들이 생겼지만, 매일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출석 상황을 통보받아



학생들에게 전화로 참여를 설득하였다. 결국 교통사고로 입원한 1명을 제외하고 7명이 이수하였는데, 만족도는 최상이었다. 특히 2학년 학생이 3명이었는데, 모두 직업 과정이 자신의 적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3학년 때 직업위탁과정에 지원하였다. 현재 우리학교 3학년은 한국폴리텍6대학에 1명, 한국폴리텍7대학에 3명, 대한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에서 1명이 직업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

예체능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이 11명, 디자인이 11명으로 나와 체육과 미술 진로집중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1학기 3단위, 2학기 3단위로 정규로 편성하였고, 여름방학 때는 방과후수업 형태로 중단되지 않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과정과 체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작년이라면 일반 교과 방과후수업을 들으며 억지스럽게 책상에 앉아 있거나 일찍이 예체능 학원으로 가버렸는데, 올해는 일반 학생들이 방과후수업을 들을 때, 자신의 진로에 해당하는 과목의 정규 수업을 추가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마음껏 운동하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 학원에 갔다면 월 35~45만원인데,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이니깐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평소에 부모님의 반대로 미술학원에 갈 수 없었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사교육비 부담 없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학기에 참여했다가 적성이 아니면 그만두어도 되며, 신청하지 않았다가 여름방학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가 자주 바뀐다. 꿈을 찾는 시기이니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항상 열어둔 셈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과정을 이수한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진학할 학생들의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진로집중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67명의 학생 중 63명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되었다고 대답하였고, 학부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7점으로 보통 이상이 100%로 나왔다. 사교육비 부담 없이 진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학교에 만족하였다. 체육과정에 참여했던 3학년 학생 3명이 전원 체육 관련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3학년이 없던 미술과정에서는 중등학생종합학예발표대회에서 시각디자인 종목에 우수상 1명, 특선 2명의 입상 성적을 거두었다.

진학과 입상보다 고무적인 성과는 학업중단 학생 수 감소였다.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학업 지속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그 결과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13학년도 7명에서 2014학년도 2명으로 5명이나 감소하였고, 학업 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수도 2013학년도 14명에서 2014학년도 1명으로 13명이 감소하였다. 수치적인 성과 외에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자신에게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의 표정이 밝아졌다. 진로집중 교육과정 참여 소감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진로집중 수업을 하면서 내가 잘 안 되는 것, 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진로집중 활동을 계속하여 나의 꿈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위해 준비를 꾸준히 해 나가고 싶다.”, “기계 설비 캐드를 배워서 매우 좋았고 진지하게 배울 수 있었다.” 최하위권 학생들도 수업에서 의미를 찾고 배움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2015년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다. 작년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 진로집중과정을 계속 이어가야 했다. 분야를 확대하여 더 다양한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도 있었다. 마침 인근에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조리과’가 있어 협의를 통해 ‘한식’과 ‘양식’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기존 미술(디자인), 체육, 직업 과정에 ‘조리’과정이 추가되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나는 1학년 담임을 담당하였는데, 학년 초에 우리반 학생들을 상담하니 전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이 4명이나 있었다. 또한 일반 과목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하여 7명의 학생을 미술(디자인), 체육, 기술 심화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여름 방학 때, ‘CAD 설계 과정’직업훈련 프로그램에도 5명이 참여 신청을 하였다.

한 학급 안에도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일반고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내신을 받아 명문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부적응으로 낙인되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억지로 버텨야 한다.



학생들을 1, 2, 3등급으로 만들려는 교육은 20%만 행복하다. 나머지 80%에게는 20%에 들어가라고 외치지만 현실을 늘 80%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제는 나머지 80%도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로집중 교육 과정은 확산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 30년을 향한 첫 걸음의 시작 수학B 학력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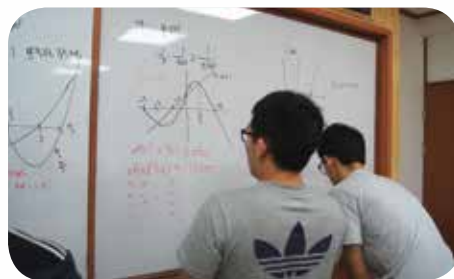
박 민 호  
영월고등학교

###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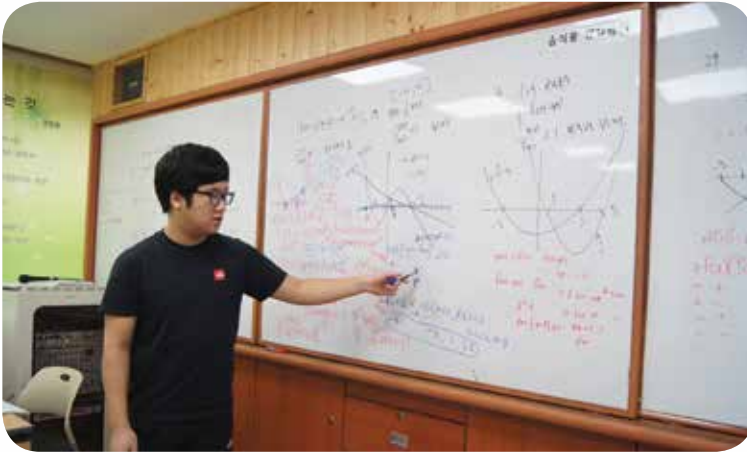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 중 강원도교육청 ‘일반고 꿈 더하기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하는 꿈 더하기’ 분야에서 수학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수능 수학B형에 대한 학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회(주 1회) 진행하였고, 1회당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사실 수기를 쓰기에는 짧은 기간이기에 거창하게 공적을 이야기하거나 확신을 갖고 이렇게만 하면 학습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비록 운영은 2개월 조금 넘게 했지만, 이 학습동아리(피타고라스반)를 기획한 것이 오래된 일이고, 기획의 계기에 5년차 아직 어린 한 교사의 고뇌가 담겨 있었기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교육 사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아리를 구상하고 있던 차에 소개로 첫 발을 던지게 된 동아리입니다. 겪은 고민과 동아리 구성 동기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교사의 탓인가? 일반고의 수학B 학력저하

재직하고 있는 영월고등학교는 전형적인 일반고입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학교통계를 보면 모든 과목의 표준점수(학교평균)가 100점(=전국평균)입니다. 하지만 수학B형만큼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영월고등학교에 와서 2년 동안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로부터 “1학년 때는 수학점수가 잘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2학년 때와 다르게 3학년 때 터무니없이 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직접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은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정을 쏟았던 한 어린교사를 회의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름 자신 있었던 수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육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년 째 연구부에서 학력평가 통계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간 졸업생의 성적추이를 관찰했을 때, 영월고에서 수학B형 성적하락은 학년도에 관계없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상위권을 보더라도 1학년 때는 1등급(4%)이 2~3명 정도 있지만, 수능 때는 심지어 3등급(23%)을 맞는 학생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단순히 응시생이 줄어서 발생한다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주변 비슷한 규모의 학교선생님에게 문의한 결과 수학B형 학력하락은 일반고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점은 나,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니었음에 안도감을 가지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요인에 의해 학생이 일반고에 재학하는 동안 수학B형 학력이 하락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과제는 제게 꽤나 진지한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2-30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면서 온갖 시도를 할 텐데, 만약 수학학력이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다른 요인(교육환경, 지역문화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 자칫 노력 끝에 허무함과 자괴감을 교사가 느껴야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늘 밤까지 남아서 자습하고, 교사는 그런 학생들을 격려하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함에도 거시적인 환경에 의해 학력이 결정된다면 슬픈 일 일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일반고에서 수학B형 학력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내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통제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교사는 희망을 갖고 교육에 힘을 쏟을 수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피타고라스 반을 기획하여 운영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첫 실험이자, 교육의 힘이 환경을 극복하길 바라는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피타고라스반은 ‘학생 중심형 과제 토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피타고라스반 : 운영의 원리와 배경

변화 가능한 교육적 시도를 하기로 결심한 후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는 다분히 상식적인 사실을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① 동아리 운영의 주체가 학생이 되도록 할 것 ② 학생간의 의견교환을 촉진시켜 스스로 발견하게 할 것 ③ 반복 학습을 통해 발견한 것을 내재화하도록 할 것. 이 세 가지가 피타고라스반의 핵심적인 운영원리입니다.



위 원리는 막연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짧은 교직생활 중 수업을 통해 고민한 점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거꾸로 수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저 또한 ‘내가 잘 구성한 내용을 학생에게 100 전달한다면, 과연 학생은 얼마나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평가로 학생당 발표를 4회 시키는데, 간혹 가르친 내용과 비교했을 때, 깊이가 없거나 개념적으로 오류가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학생을 보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차라리 학생이 50부터 시작하여 70~80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학생들도 ‘토론하면서 학습했을 때, 학습효과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학생들을 관찰해보면, 혼자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습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토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직 우리나라에선 ‘하브루타’의 광경을 보기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토론의 효과를 경험한 저는 학생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리가 학생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한 유형에 대해 10명의 의견을 들으니 다양한 접근방법을 알 수 있었고, 혼자 할 때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혼자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느꼈던 학생들이 토론시간을 할애하는데도 여유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형을 학생이 중심이 되어 발표하고, 토론한 후에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재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동의하듯이 아무리 스스로 발견했을지라도, 반복하여 적용해보는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뜬구름 잡는 기억만 남을 뿐입니다. 특히 수학은 더 그렇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10문제 나누어주고, 하루에 2문제씩 풀게끔 권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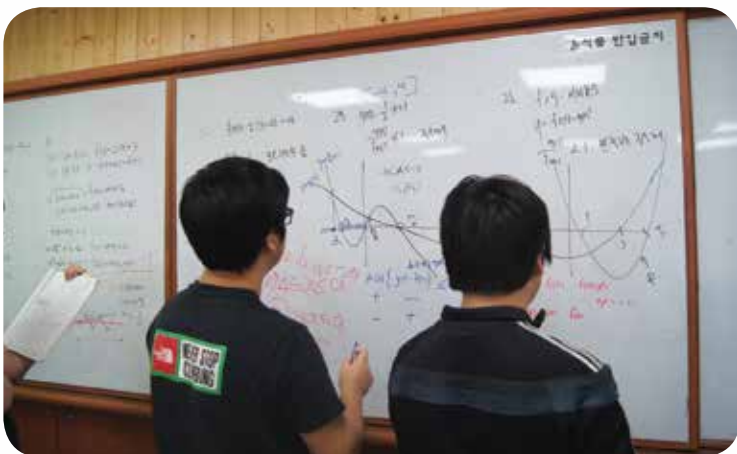


## 피타고라스반 : 실제모습과 현재까지의 성과

우선 상수준의 학생 10명으로 동질집단을 구성하여, ‘4점 맞추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중수준 ‘3점’, 하수준 ‘2점’도 가능) 교사가 해야 하는 역할은 가이드라인의 제시입니다. 학생들과 토론을 하다보면, 금방 수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이 학생들도 1~2등급을 받을 능력이 있음에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체계적인 학습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학학습은 (개념학습과 기본문제)→(응용문제)→(기출문제)의 단계를 거쳐 능숙해져야합니다. 하지만 영월고 3학년 학생들은 ①기하와벡터, 적분과통계를 처음 배우면서, ②동시에 2학년 때 배운 수 I, 수 II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③기출문제를 무작정 풀기 시작합니다. 이런 학습패턴에선 새롭게 배운 내용을 숙지하기 힘들고, 4과목이 고르게 출제되는 수능에서 4문제(2등급기준) 이내로 틀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학생들이 막연히 문제만 많이 풀지 않도록,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새롭게 문항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결가능성과 출제빈도를 기준으로 과목의 경계를 두지 않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후 O.T를 통해 학생들에게 연간 학습계획과 전략 그리고 방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주제를 맡고, 활동 전까지 전원이 해당 주제(EBS 기출플러스)를 풀어옵니다. 단순히 문제만 풀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형을 구분하고, 풀이 전략과, 필요한 개념을 메타인지(내가 왜 이 생각을 해야했을까?)를 통해 정리합니다. 당일, 대표자가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그것이 자신이 생각한 방식과 차이가 있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관점도 제시해주면서, 유사문제 10문제를 다음 차시까지 과제로 내어줍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동아리 학생들의 평균점수(원점수 기준)는 운영 전 67.3점(3월), 64.7점(4월)에서 운영 후 79.3점(6월)이 되었습니다.



향상되었다는 말은 백분위 점수가 공개 된 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가수능때까지유지된다고확언하기에도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가채점 후 와서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은 ‘선생님을 만나서 수학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문자해주었을 때, 일차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아리가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나오자가 없고, 오히려 6월 모의고사 후 참여하고 싶다는 학생의 요청이 생겼습니다.

## 제언과 소감

위 수학동아리 운영은 대부분의 일반고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정 부분 교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이상적이겠으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글의 중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교육적 시도는 어찌 보면 저를 위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열정을 쏟기보다는 나의 다양한 교육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환경이라는 변수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또한 목적의식을 갖고 교육함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확신을 갖고 교육하고 싶었습니다. 이 첫 걸음의 종지부에서 ‘실패’라는 결론을 스스로에게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될게 없으며,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가져다주지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환경에 손을 들어줄 생각은 없었으며, 개선 혹은 또 다른 방향의 교육적 시도를 제 교직생활동안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모든 교육자들이 걸어왔던 길이며, 교육이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타고라스반은 한 소재이며, 수학실생활 PPT발표, 수학신문만들기, 수학엽서쓰기, 수학포스터제작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을 알고, 즐기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학생을 통해 배우고, 학생을 통해 가르치다

김 태 형

송현여자고등학교

2014년부터 일반고 역량 강화 사업 클러스터 수업에 본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교는 과학 수업이 할당 되어 내려왔고 과학과 협의회를 통해 제가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3 담임을 맡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클러스터 수업까지 더해지니 심적인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수업 준비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수업 자체가 생물 심화 과정이었기에 학생들도 이해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겹게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보며 자기소개서에 쓸 한 줄이 학생들에게 이 고생을 시키는가 싶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2주의 수업은 끝이 났고 그렇게 제 인생에 클러스터 수업 역시 막을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를 담당 부장 선생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14년이 지나가고 새 해가 다가 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평소 저와 친분이 깊던 또 한 분의 부장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제가 있는 3학년 교무실을 방문 하셨습니다. 다짜 고짜 저에게 “올해도 클러스터수업 하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미 담당 부장 선생님께 어려움을 말씀 드린 탓에





절대로 올해는 말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학교에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야 얼마든지 저를 내어드려야지요.” 라고 농담식으로 대답했고 우리는 서로 ‘허허허’ 소리 내어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 후 교내 통합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김태형쌤 올해 내가 클러스터 담당 부장 됐어요. 어제 한 말에 책임지는거죠?”라는 청천벽력 같은 한 줄의 문자, 그리고 저의 이름 석 자가 강사 명단에 떡! 하니 들어있는 붙임파일이 수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의 첫 번째 재물, 아니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주 뒤 클러스터 운영 회의에 참석 하였습니다. 부장 선생님은 장학사님이 해부 수업 개설을 제안 하셨다며 동물 해부 수업을 맡아줄 선생님이 없겠냐고 생물교사라고는 저 밖에 없는 회의 장소에서 모두에게 문뚝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결국 저만 모르고 나머지 모두가 알고 있는 저의 운명 말입니다. 더 이상의 반항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에 해부에 관심이 많았고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과학부 예산 문제와 과학 캠프 운영 날짜 문제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껏 못해봤던 실험을 모두 해보리라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동!물!해!부!실!험!수!업!**’은 적어도 저에게 만큼은 극적으로 개설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이 해부 수업을 꺼려하여 인원이 확충되지 않으면 폐강 될 수도 있다고 전해 들었으나 오히려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신청자가 몰려들어 학교당 인원 제한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해부 수업은 시작 되었습니다. 동물 해부 실험 수업은 동물 종을 선택한 모듈에서 당일 진행하는 해부 실험에 대한 발표 수업을 하고 이어서 제가 마취와 해부





방법에 대해 시범을 보인 뒤 모둠별로 실제 해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동물은 불가사리, 대합, 오징어를 시작으로 척추동물문에 속하는 파충류, 양서류, 조류, 포유류까지 총 11종을 해부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수업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업을 막상 시작하고 보니 해부에 거부감을 가진 학생이 몇 명 보였습니다. 그 중 한 학생은 발표 수업도 잘 하고 성실하게 참여는 했지만 제가 해부 시연을 할 때면 표정 관리 못하고 서있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만청을 피웠습니다. 어떤 학생은 토끼 해부를 할 때 울며 실험실을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수업의 취지와 해부 실험의 목적을 설명하며 다시 수업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온다고 아침을 못 먹고 와서는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학생, 버스 잘 못타서 엉뚱한 곳에 내렸다가 다시 택시 타고 왔다는 학생, 아침부터 엄마와 싸우고 왔다고 수업하는 4시간 동안 한숨만 폭 폭 쉬는 학생... 하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가 일반 사람들보다 마취제에 무한히 민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취 당하는 흰 쥐는 눈을 말뚱말뚱 뜨고 있는데 마취 시키는 제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맑은 공기를 쐬러 밖으로 나갔고 학생들은 그런 저를 보고 킁킁 웃었습니다. 해부 수업 진행 교사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제가 마취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업하기 싫다는 학생 하나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지각하거나 준비를 안 해오거나 보고서를 성의 없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을 해 와서는 같은 조에 있는 친구와 후배들에게 기관의 이름, 특징 등을 알려주는 학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이 속해 있는 모듬은 매주 토론회식 해부 실험의 즐거움에 폭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관계로 시작 했지만 어느새 가장 협력과 단합이 잘 되는 모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조에서는 서로 자기가 매스를 잡겠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관심 있는 동물을 정해 순번제로 돌아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조는 자기들끼리 ‘마취사(마취 담당)’, ‘개복사(복강 절개 담당)’, ‘적출사(기관의 적출 및 배열 담당)’, ‘집사(절개하는 기관을 핀셋으로 고정 담당)’, ‘찍사(고정 핀으로 동물의 팔다리를 해부판에 고정)’ 등 역할을 분담하여 모듬 자체를 실제 수술실처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실험 수업에 폭 빠진 그 자체였습니다. 수업이 학생들 스스로에 의해 너무나 즐겁게 운영되어 가는 것을 보며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황소개구리 골격 구조 모형 제작’으로 저에게 특화된 수업이라 모든 실험 중 유일하게 학생이 아닌 저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스크린을 보며 자기 자리에서 부위별로 실험을 할 것이라는 저의 예상을 뒤엎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물 표본과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며 뼈를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모듬과 모듬을 오가면서 뼈를 비교해가며 각자 맡은 부위의 골격 해부 모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직접 보지 않으면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며 떠돌고 휴대폰 보며 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은 모두 황소개구리 골격으로 하나가 되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관찰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연신 ‘와우~! 대박!’을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실험이 종료되고 정리를 하는데 학생들이 와서 “ 쌤 다음 학기에도 또 하면 안 돼요?”, “ 뼈 맞추기를 조금 덜 했는데 다음 주에 저희 조만 와서 잠깐 마무리 하고 가도 돼요?” 등 마지막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학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대학 자기소개서에 적을 한 줄’을 위해 수업에 참여한다는 잘못 된 편견으로 학생들을 바라봤던, 그리고 등 떠밀려 이 수업을 맡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업 분위기를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교사의 카리스마라고 생각했고 수업은 교사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학생 또한 교사에 의해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교사 중심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수업 공동체 연구회 회원이었지만 교실 수업 개선과 같은 대안은 역량이 부족하고 카리스마가 부족한 교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클러스터 수업을 통해 그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산산조각났습니다. 학생들로 인해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학생들로 인해 수업을 더 준비하고 학생들로 인해 수업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업이 학생 중심일 때 학생 뿐 아니라 교사까지 즐겁고 보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클러스터 수업은 고작 교직 경력 5년차인 걸음마 교사인 저에게 앞으로 교사 인생의 방향과 마음가짐에 혁신을 가져다준 너무나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결국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은 교사를 가르치게 한다는 것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움직이게 하고 학생들끼리 지식을 나누며 교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일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관계자 분들과 저를 등 떠밀어 해부수업을 개설하게 해주신 교육 과정부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저와 같이 깨달음을 얻는 교사가 늘어나고 또한 저의 글에 등장한 사례와 같이 행복한 수업을 경험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우리 논문 한번 써볼까?

조 선 아

동명여자고등학교

### 우리 논문 한번 써볼까?

동명여고에 생명과학 교사로 재직하게 된 첫 해 2012년, 여름방학 동안 과학실험반을 개설하였다. 쉽고 재미있는 구성된 실험반 수업의 학생 만족도는 높았고, 이듬해 다시 여름방학 과학실험반이 개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신청자의 대부분이 작년에 참여 했던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일반고의 과학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과학실험이란 얼마나 뻘하던가. 작년의 만족감을 기억하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신청한 2학년 아이들을 생각하니 나는 순간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

아무리 학교의 실험 기자재를 다시 살펴봐도 답이 나오지 않던 그때, 예전 과학중점 고등학교에서 과학논문제작 프로젝트의 대학원생 멘토로서 참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팀별로 이공계 대학원생 멘토가 한명씩 배정되어 있었고, 교사는 관리자의 역할이었다. 쉽지 않았지만 ‘내가 멘토 겸 교사의 역할을 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시작하게 되었다.

### 산 넘어 산!

10팀이 넘는 다양한 아이들의 멘토링을 해주며 논문의 주제 선정부터 실험 설계와 수행과정까지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 주는 일은 예상한 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예산 부족이었다. 실험으로 검증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해야하는데 기자재가 턱 없이 부족하다 보니 제약 사항이 너무 많았다. 필요한 것을 팀별로 구입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처한 경제 사정이 달라 각자 돈을 걷어 실험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자칫하다간 아이들 간에 위화감 조성 또는 불화까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우리는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기로 했다. 이어폰의 종류에 따른 청력 손상 정도, 스마트폰 사용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간헐적 단식에 의한 인체의 변화 등 별도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주제들로 선정하여 실험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논문을 완성하였고, 논문 작성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준 아이들이 기특하고 고마워서 발표회를 마련하였다. 잘한 아이들에게는 자체적으로 상을 주고, 아이들과 함께 돈을 모아 논문집을 제작하였다. 그렇게 우리만의 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고 잘 된 논문은 학교교지에 실리게 되었다.

## 날개를 달다

2014년, 새 학년이 시작되었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과학논문반의 개설은 당연히 되는 분위기였다. 이제 3학년이 된 아이들은 논문을 제작할 2학년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익한 정보를 주고, 또 사심 없이 공유하였다. 도전을 했던, 그리고 도전을 하려는 아이들 간의 무언가 끈끈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과학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논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평소 아이들이 궁금해 하던 ‘정말 그럴까?’라는 호기심을 자신들만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부장선생님이 사업에 동참해 볼 것을 제안하여 주셨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돈 걱정’을 하지 않고 탐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뭉클하게 기뻐했다.

새로운 아이들과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실험 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니,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개성대로 평소에 궁금해 하던 현상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탐색하였다. “배경지식이 없으니 실험 설계가 잘 안 돼요!”라며 평소에 발길도 잘 하지 않던 지역 사회의 도서관을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였고, 교사인 나도 가물가물한 이론을 물어보거나 자신들끼리 찾아온 자료를 공유하고



가르쳐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같았다.

한편 자외선 차단제의 형태에 따른 자외선 차단 효과가 궁금하다던 팀의 아이들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최근 유행하는 젤 네일아트를 가끔 받던 나는 젤 네일의 원리를 이용하여 실험할 것을 조언해 주었고 아이들은 지급받은 재료비로 꽤 비싼 가격의 젤 네일 램프를 구입하였다.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돼지껍데기에 바르고 자외선을 방출하는 UV램프에 구운 후 돼지 껍데기의 색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를 매니큐어와 섞어 인조 손톱에 바른 후 UV램프에 노출하여 자외선 차단제별 매니큐어의 굳기 정도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엔 자외선이 가장 강한 대낮에 자신들의 팔을 구획화 한 후 종류별 자외선 차단제를 직접 바르고 실험하는 젊은 혈기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 다른 팀은 스트레스를 풀 적당한 법을 찾지 못해 매운맛에 중독된 여학생들의 미각이 안전한지 미각의 민감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평소 자신들이 즐겨 찾는 매운 음식을 먹은 후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의 민감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고 그래프로 변화량을 수치화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외 손 씻기를 게을리 하면 얼마나 많은 세균에 노출될 수 있는지 확인한 팀, 빵에 들어가는 각 종 첨가물들의 영향을 탐구한 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세에 따른 집중력의 정도, 건강식품의 질병예방과 치료효과, 음식을 먹는 속도와 수업시간에 졸린 정도의 관계,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모두 여고생들이 궁금할 만한 주제들을 선택하였고, 본인들의 눈높이로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논문반 내내 주체는 당연히 아이들이었다. 아이들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배경지식을 공부하였으며, 교사는 단지 조력자의 역할만 하였다. 그렇게 아이들은 성장해 나갔다.

## 일반고에서 논문 제작을 한다는 것

“질문 있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하던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질문을 받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질문을 많이 받았고 바쁘게 대답해 줘야 했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해 대답해 주었으며 아이들이 만족하며 자리를 뜰 때 나 또한 보람을 느꼈다. 논문 제작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을 물으면 나는 서슴없이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이 아닌 평범한 일반고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는



동명여고 과학논문집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열정 자체가 이상적이었다.

또한 아이들과 논문을 쓰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창의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실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는 절실히 필요했다. 노력하는 학생에게 그 노력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고 성적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에게 집중하였다. 이러한 나의 역할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한 팀이 되어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유대감과 결속력으로 어려운 고비를 한결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보호막 장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완성된 논문집을 한권씩 받아들이고 서로서로 격려해주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니 몇 개월간의 고생스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사실 논문의 내용 자체는 거창함과 거리가 먼 정말 소박한 수준이다. 하지만 “선생님, 저희끼리는 절대로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며 아이들은 나에게 ‘자신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주변 선생님의 격려와 조언 또한 큰 힘이 되었다.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막상 겪게 되면 별 것 아닌 일들이 많다. 아이들과의 논문 제작이 바로 그랬던 것 같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큰 산이 있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게 되었고 본래의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처음 논문반을 시작할 때 자신없어하는 아이들의 우스갯소리 중에 “우리는 과학고생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이 있었다.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를 ‘정말 평범한 일반 고등학생’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더욱 평범하게 만드는 일관된 교육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면 우리 아이들도 특별한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나와 너의 자리 찾기

신 범 철  
신명고등학교

### 제물포+가물치=자기연민

물리보다 더 유명한 제물포, 제 때문에 물리를 포기했다. 물리하면 많이 쓰는 말이다. 이걸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가물치란다. 가 때문에 물리 치아뿌따. 2005년 교직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땐 마냥 좋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내가 제물포이고 가물치가 됨을 알았다.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 수업시간마다 들고 들어갔던 실험기구나 과학완구도 성가신 물건이 되었고,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이러한 환경은 물리교사로 가지고 있던 자부심을 갉아먹고 자기연민에 빠지게 했다.

### 새로운 기회,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

그러던 차에 2014년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을 접하게 되었다. 업무담당 선생님의 권유를 주저 없이 받아들였다. 진로·적성에 연관하여 학생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입시에 매몰되어 나도 즐겁지 않고 대다수 아이들도 관심이 없는 문제집 풀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수업의 대상과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매력이었다. 여러 핑계로 가득했던 내 앞에 명석을 깔아주는 기분이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학생들을 모집하기 전에 수업 방향을 잡아야 했다. 입시과목으로서 물리는 학생들에게 매력이 없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전자, 기계, 자동차, 컴퓨터 등 공대를 선호한다. 그래서 방향을 ‘공대 진학을 위한 물리탐구’로 정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의 이름을 ‘물리탐구 마찰력제로(부제: 공대 진학을 위한 3종 세트-역학, 전자기, 파동&광학)’로 지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거침이 없다는 뜻이다.

학생은 2학년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을 섭외했다. 일반고에서 물리는 해보기도 전에 주저하는 과목이라 처음 시작하는 수업을 모든 대상에게 개방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주중 수업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토요일 오전 9시로 시작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웬만큼 자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참석자체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생각보다 쉽게 학생들을 모을 수 있었다. 모두 12명. 3명 1개조로 4개조를 만들었다. 3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격주 토요일 3시간씩 계획하였다.

## 첫술에 배부르랴

2014년 3월 22일, 시간기록계를 이용한 낙하운동측정이라는 주제로 마찰력제로는 시작되었다. 각 주차 3시간은 배경이론 설명, 실험/탐구 활동, 결과 발표/시연 순으로 진행을 했다. 첫 수업이라 아이들은 진지했다. 실험을 하는 동안 시끌벅적하며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책상 위에 올라서며 활기차게 움직였다. 주변에 수업하는 교실이 없어 애써 학생들을 조용히 시킬 필요가 없고, 시끄럽게 작동되는 시간기록계도 부담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경험이 아니라 계획된 시간을 넘어 썼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첫 수업은 뭔가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활기찬 아이들의 모습은 이전에 느끼지 못한 흥분을 가져다 줬다.

2주차는 전 시간 실험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렇게 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는데...” 몇몇 조에서 준비한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다. 자신의 발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제시한 것이다.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한 한글파일에 그냥 작성한 것을 보여 주도록 안내했다.



시간기록계를 이용한 낙하실험



실험 결과 및 토의 조별 발표



이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마찰력제로가 3주차에 들어서면서 삐걱거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험 결과와 토의 내용을 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3명의 학생이 다른 역량강화 수업도 신청했는데, 학교에서 조절해주기로 했지만 시간이 마땅치 않아 손 놓고 있다가 두 수업이 같은 시간대에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학생들을 내보내고, 혼란스러웠던 나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매점의 아이스크림으로 달랬다. 일반고에서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게 되면 내용만 달랐지 결국 참여하는 학생은 그 학생이 그 학생인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다시 조를 정비하고 우리의 길을 갔다. MBL실험장치를 활용한 정량적 자료수집 실험, 물로켓 제작, 롤러코스터 제작, 동영상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한 낙하운동 측정 등 1학기 동안 이루어진 10주차 30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뭔가 허전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 신명작품전

여름 방학이 지나고 마찰력제로 학생들이 찾아왔다. 10월 말에 있는 교내작품전에 우리의 활동을 전시하고 싶다는 것이다. “너희가 뭘 보여 줄게 있다고?”, “우리가 만든 롤러코스터 전시해요”, “그 큰 폴라드관에 롤러코스터 하나 띄우면 얼마나 초라한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멋질걸요!”

결국 조건부 승낙을 했다. 다른 사람 앞에 전시한다는 것이 물건하나 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보는 이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다. 조별로 롤러코스터에 담긴 과학원리, 롤러코스터의 역사와 세계적인 롤러코스터 등을 조사하게 했다. 조사한 내용을 보고 만족스러우면 전시를 도와주고 별로라는 생각이 들면 발을 빼겠다는 것이 나의 조건이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전시를 위한 물밑작업은 발 빠르게 진행하였다. 놀이공원 분위기가 나도록 다양한 롤러코스터 재료를 준비하고, 우리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 슬라이드에 대해 구상했다. 1학기동안의 활동결과물도 함께 전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노력에 잘 녹아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마찰력제로 활동보다 몇 배는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9월이 지나고 10월이 들어서는데도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초조한데 어찌다 마주치는 아이들은 나의 눈을 피하였다. 2학기 중간고사를 맞이하면서 ‘그럼 그렇지...’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작품전에 전시할 동아리 지도교사 모임에 난 해당사항이 없었다. 아이들이 하지 않겠다고 업무담당선생님께 이야기했단다. 한 학기를 같이 하면서 생긴 기대에 못내 씁쓸했다. 하지만, 그들의 변덕은 끝나지 않았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업무담당선생님을 찾아가 매달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선생님,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을게요.” 이렇게 작품전을 열흘 앞둔 시점에 우리의 준비는 시작되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시판을 제작하고, 5대의 롤러코스터와 놀이기구를 제작했다. “부품이 없는데요, 이거 꽃아가지고 완성했어요.”, “애들이랑 오늘까지 만들기로 해서 밤새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차가 중간에서 멈춰서 몇 번을 부수고 조립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자신의 경험담을 쏟아 놓는데 기특했다.

전시 전날, 중앙에 대형 롤러코스터를 배치하고 주변에 작은 롤러코스터를 배치하였다. 벽면에는 롤러코스터 관련내용을 정리한 게시판을 걸고, 벽면 중앙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우리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슬라이드를 빔프로젝터로 쏘았다. 10주차동안 했던 활동전시물을 비치하고, 입구에는 마찰력제로 탐구활동발표 현수막을 세웠다.



2014 신명작품전에 전시한 물리탐구 마찰력제로

10월 29일 작품전 시작일. 전시대 안에 서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뿌듯함 자체였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롤러코스터와 상영 영상에서 나오는 배경음악 소리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을 붙잡았고, 치켜드는 엄지손가락에서 어깨가 들썩였다.

‘그래 그곳이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야. 이루고자하는 목표가 있는 곳.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일어날 이유가 있고, 마침내 이루고 마는 자신의 능력을 찾게 하는 그 곳이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야.’



## 절차탁마(切磋琢磨; 자르고 갈고 쪼고 닦는다)

“선생님. 올해도 롤리코스터 만들기 해요?”

2015년 3월,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되는 역량강화 수업에 고3이 된 작년 마찰력제로 학생이 말을 건넨다. 아직도 롤리코스터를 전시했던 여운이 남아 있는가보다.

“같은 거 하면 식상하잖아. 올해는 다리 만들기 쪽으로 가볼까 하는데, 아니면 레고 마인드스톰? 작년에 유니스트에 진학한 선배가 1학기 때 이거 수업 듣는다는데.”, “좋겠다. 우리도 하면 안돼요?”

올해 물리탐구 마찰력제로는 훨씬 세련되고 풍성해졌다. 3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주차 60시간으로 배나 늘어났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주제를 역학, 전자기학, 파동&광학으로 제구성하여 활동 주제를 선정하고, 작년처럼 이론 설명이 아닌 우리 교과서에서 관련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학습지를 만들었다. 실험과 발표는 올해도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발표 전 조별 토의는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물리탐구 마찰력제로 홈페이지(<http://www.smllove.net/zero>)를 만들어 활동할 내용과 조별활동, 활동사진 등 우리 마찰력제로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다.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수업에 대한 소감을 듣고 있다. 2학기에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활동과정을 담은 전자책을 출간할 것이다.

## 나와 너의 자리 찾기 - 물리탐구 마찰력제로

지금도 여전히 조별 실험을 하다가 혹은 토의를 하다 서로에게 빠져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집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깊고 넘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른 척 물로켓 날리며 밖에서 바람도 쐬고 맘껏 웃을 수 있는 주제로 긴장을 날리기도 한다.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으로 시작된 물리탐구 마찰력제로는 ‘제물포+가물치=자기연민’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끼와 역량을 위해 달리는 나의 모습을 찾게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넘어지고 짜증내면서도 다시 일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능력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었다. 우리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누어져 일반고에 새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해 본다.



#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찾기!

이 정 호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찾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본교에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도입한 지 1년.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시작된 2015년은 교과별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운영의 정착은 물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본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큰 과제였다. 교무운영부장 업무 4년차, 새로운 도전이었다.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수많은 회의가 이어졌고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내 구성원 간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의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었다. 그러나 본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랬더니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다.

##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

일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얻어낸 결론은 ‘해답을 우리 안에서 찾아보자!’ 였다. 특목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경험할 수 있으나 본교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많은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본교만의 강점을 살린 다양하고 차별화된 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첫 번째 미션! 진로집중과정의 구성이었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진로집중과정의 프로그램은 외국어고나 과학고, 자사고 등의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고안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진로집중과정을 생각하던 중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과 수능 대비는 물론 실기까지 사교육 없이 '학교 내 수업'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공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에게는 충남 대학교와 협력하여 고교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수진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와 학문탐구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해 주고 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충남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대한여성 과학기술인회 등의 협조로 일반고에서 갖기 힘든 전문적인 과학 실험 활동을 하며 자연과학도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음악계열 학생들을 위해서는 인근 대학의 음악교육과 교수진에게 자문을 구하고, 음악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과정을 설문조사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음악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시창과 청음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아들였고, 합창과 합주 수업을 통해 음악적 체험을 온몸으로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피아노, 가창, 장구 등 전공 실기와 연주를 실습하기 위한 공연 실습 수업도 인문사회 계열과 2, 3학년에 매학기 3단위씩 차이를 두어 개설하였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와 학습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으며,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본교 교사들은 자기계발을 통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진로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 충족은 물론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함께 보람을 찾아가고 학생들에게 더욱 다가가려하는 본교 선생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롭다.

두 번째 미션! 학생부종합전형 등 다양한 수시 전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진로맞춤형 프로그램인 ‘성모 진로 아카데미’의 운영이다. 이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주로 대학의 전문 교수진과 본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학 연구반은 간호사가 꿈인 학생들이 간호학과 교수님, 간호사들로부터 간호학 개론 수업을 듣고 예비 간호사로서 다양한 현장 실습 경험을 한다. 교육학 연구반은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님을 강사로 구성하여 예비 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계열 대입 전형에서 필수 요소인 심층면접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는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독일문화 연구반은 주한 독일대사관과 독일문화원에서 파견된 교수님들과 독일 문화에 대해 흥미로운 탐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광계열, 항공운항계열, 호텔외식계열 학생들을 위한 관광콘텐츠연구반은 관광학 박사님과 전문 직업인들을 초청하여 학생 흥미에 맞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수어반은 수어를 배우는 대전성모여고의 전통 있는 자율동아리 ‘마조레셀’ 학생들과 특수·특수 유아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수어 강사님과 동문인 현직 특수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고, 장애우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적인 소명감을 심어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함께 만들어가는 대전성모여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하나인 학생 맞춤형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대학의 교수진 섭외였다. 교수진은 수많은 지역 고교 중에서 본교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고, 정교수님들의 강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기에는 학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을 헤아린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대학총장님을 여러 차례 만나 뵙고, 학생들을 위한 진심을 호소하셔서 마침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었다. 각 과사무실 조교 선생님들께 취지를 설명하고 원하는 분야의 주제를 말씀드린 후 교수진 스케줄을 조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고되고 번거로웠다. 하지만 직접 교수님들께서 학교로 찾아오실 때마다 본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방문하시는 교수님들께 친절하게 인사를 드리고 진지하게 강의를 들음으로써 대학의 교수진에게 자연스럽게 본교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인문·사회 분야의 심화 탐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여러 트랙으로 이어지는 교수님들과 교사들의 강의를 듣고 관련 분야 독서와 토론, 소논문 작성까지 이어지는 깊이 있는 학문 탐구의 장을 기대하며 실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전공 지식에 대한 내면화를 위해 강의 후 본교의 담당 교사가 추수 지도를 했다. 강의를 함께 들은 교사가 강의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다음 날 학생들은 간단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전시성으로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본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2학기에는 각 영역별 교수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학문 분야에 대해 소논문 작성이 과제 연구로 실시될 계획이며, 교수님들께서 대학원생들의 협조도 약속하셨다.

### 꿈과 희망으로 미래를 그린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야심차게 기획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본교 발전과 교육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부담이 컸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는 달리 본교 안에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문 탐구라는 대학의 존재 의미를 학생들에게 직접 전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 저는 꼭 교사가 될 거예요!”, “간호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 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본교 학생들에게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그래서 난 오늘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다.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학생 부문

STUDENTS





# 인문사회 거점학교에서 찾은 나의 길

이 다 인

성심여자고등학교

3월, 고3이라는 새 명찰을 달고 새 마음가짐으로 학기를 시작한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평소 외교, 정치 등 시사부문에 관심이 많고 진로도 그 분야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사실 현재의 학교 시스템과 입시전이라는 현실 속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평소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던 선생님이 계셨고, 그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인문사회 교육과정 거점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추천해주셨다. 교과과목이긴 하지만 경직되지 않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활발한 토론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해주시니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하겠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는 않았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학생이고, 더군다나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인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3학년이 참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하는 생각에서였다.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식이었고, 그 시간이면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은 학교와 도서관에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할 텐데 나만 수능 시험 과목도 아닌 과목에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단지 내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인가?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인가? 결국 내린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있어 더없이 훌륭한 공부로 다가왔다. 그래서 선생님께 내 뜻을 말씀드려 신청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명이 넘는 학생 중에 3학년은 단 두 명 뿐 이었다.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어떤 수업이 진행될까 하는 설렘 속에 드디어 ‘인문사회 교육과정 거점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첫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분위기는 무척 우호적이었고, 그 이후 몇 차례의 수업을 하고 나서는 말장난도 할 수 있는 편한 분위기가 되어 차츰 긴장이 풀리고 수업에도 수월하게 적응해 나갔다. 또한 걱정이 사라지니 수업의 내용 역시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다.

수업은 크게 ‘국제경제’, ‘국제정치’, ‘과제연구’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중 경제 과목은 내가 평상시 정말 문외한이던 분야였다. 관련 지식도 없었고, ‘딱딱 할 것 같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제 수업은 내 생각과는 정말 달랐다! 나와는 정 다른 세계에서 쓰이는 줄로만 알았던 경제 용어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말들이었고, 선생님이 들어주신 예들도 경제는 마냥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즐거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독재자 게임, 최후통첩게임과 병행한 수업이었다. 아마 이 게임 없이 책에 써있는 개념만 읽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나는 분명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직접 그 게임에 참여해봄으로써 일반 대중의 심리, 이 심리와 연관된 경제 이론, 합리적 선택 등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었다.

그 다음 정치 과목은 나의 진로와 전공 희망 분야와 가장 관련이 큰 과목으로 이번 프로그램 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였다. 그런 의미에서 첫 시간에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행된 수업은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해주었다. 세 모둠으로 나뉘어 각각 종이, 깎이지 않은 연필, 칼을 하나씩 가지고 서로 합의한 후 연필을 깎아 종이에 쓴 후 가장 먼저 제출하는 모둠이 이기는 방식이었다. 우리 모둠을 포함한 모든 모둠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팀이 이길까’에만 큰 관심을 가져 자신들의 방법만을 내세웠고 결국엔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게임이 끝나고 완전한 승자는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소통의 부재’였다. 이처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통이고, 귀를 막은 채 자신의 말만을 하는 것은 모두의 손해가 된다는 정치의 기본을 알려준, 뜻 깊은 수업이었다. 또 의미 있었던 수업은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토론 수업과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해 공부한 수업이었다. 토론 수업은 아마 학교의 정규수업이었다면 시험과 진도에 쫓겨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등에 관해 진지하게 돌이켜볼 수 있었다. 그리고 헌법 수업은 아마 가장 내가 많은 것을 배운 수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시간에 속성으로 끝내지 않고 오랜 시간을 들여가며 헌법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나 혼자 헌법 조항들을 읽었다면 도대체 이게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는지 몰랐을 항목들이 많았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헌법수호라는 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 유세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할 때 흔히들 쓰는 말이 ‘헌법 수호’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당시 헌법을 만들 때의 입장으로 돌아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는 비판의식도 갖게 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과제연구’ 과목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었다. 거점학교 프로그램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싶다. 이 과목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신문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평소 정말 꼬박꼬박 챙겨 읽고 싶었지만 변명 같은 핑계들로 읽지 못한 날들이 태반이었다. 그러던 나에게 이 수업시간은 정말 부담 없이 우리 사회의 현안들과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단순히 신문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둠별로 그 주의 기사를 선정하여 다른 모둠들과 선정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린 기사거리들을 다른 모둠들이 선정해서 사회를 이 분야 저 분야를 폭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학교친구들과는 주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 상대적으로 약간 가벼운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다.

이 거점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점은 내가 한 번도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실 평소에 잠이 많아, 학교 수업시간에 조는 시간이 꽤 있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주말 오전에 시작하는데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한 번도 졸지 않았다. 진짜 스스로도 너무나 신기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흥미 정도를 내 몸이 증명해준 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이 교육과정은 나의 진로 선택에 확신을 주었다. 인문 사회분야는 취업이 어렵다, 대학을 나와도 할 것이 없다는 주변의 여러 압력에 사실 나의 꿈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반년 간 배운 내용들처럼 인문 사회학이 이렇게 유익하다면 절대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고, 설사 그렇다 해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이처럼 거점학교 프로그램은 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 주 한 주 수업에 참여할수록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더해져 갔다. 진심으로 이 '인문사회 교육과정 거점학교' 프로그램은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재산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과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고맙다. 몇 년 후에 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되어 만날 날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 막연한 바람을 현실적인 원함으로 만들어 준 팔마유네스코 동아리 활동

성 혜 주

순천팔마고등학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을 이루기란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얻기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약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배움이 주는 본질적인 가치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껴본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투영하는 신념이나 믿음을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뛰어난 성적과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에 몰두하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를 거둘 때마다 좌절하고 힘들어 한 경험만이 뇌리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가 저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쉬지 않고 제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 왔습니다. 만약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저는 배움이 주는 진정한 가치나 의미를 모르는 상황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배움의 터전으로 타성에 젖은 채 다가 갔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하이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대부분의 친구들처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무관한 선생님들의 전유물로만 생각 하고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온전히 발현시켜주고자 ‘하이플러스’사업을 이루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 중 학생 학술 동아리 지원 부문에 공모할 계획임을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지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언어적 환경을 두루 연구하는 자율동아리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아리를 학술 동아리로 발전시켜 더욱 더 심화된 내용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평소 저희 자율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선생님께 친구들과 함께 찾아가 말씀을 드리자 향후 동아리 활동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추진할 동아리 활동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선생님께 보여드렸고, 선생님께서는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한 후 이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제가 재학 중인 학교가 ‘유네스코학교’에 가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유네스코학교 가입을 목표로 기존의 자율동아리 활동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팔마유네스코’라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를 결성하였고 유네스코학교 가입에 초점을 맞춘 동아리 운영 계획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정리한 ‘팔마유네스코’동아리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제가 재학 중인 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하이플러스 사업’의 학생 학술 동아리 운영지원 부문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저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선생님께서는 동아리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학생 학술 동아리 운영지원 대상 동아리로 ‘팔마유네스코’가 선정이 되었고 너무나도 원했던 것이 실현되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친구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궁극적인 목표인 순천팔마고등학교가 유네스코학교에 가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생 학술통아리의 운영을 위해 지원해 준 지원금을 활용하여 유네스코학교로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교 홍보 동영상 촬영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설 학교인 관계로 전통과 유서가 깊은 다른 학교들처럼 다양한 성과를 동영상에 담을 수 없었지만 유네스코학교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의지를 온전히 드러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전폭적으로 저희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셔서 더욱 더 힘을 내서 동영상을 제작 하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를 다른 자료와 함께 한국유네스코위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30일, 제가 재학 중인 순천팔마고등학교는 한국유네스코위원회가 선정하는 유네스코학교가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짧은 기간 동안 친구들과 제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까하는 부담감보다는 우리가 막연히 바라왔던 것이 원하는 것이 되고, 이를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해내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처음에는 우리의 활동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친구들도 지금은 ‘팔마유네스코’동아리를 열렬히 응원해 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팔마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을 우리 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봉화산 둘레길 주변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팔마 봉화산 둘레길 그린 서포터즈’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여 순천팔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한 뒤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일깨워 준 소중한 기회를 후배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생각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고등학교의 팍팍한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공부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간직해 온 소중한 꿈과 끼를 피워 보지도 못하고 접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역동성과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학교교육 현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학생 학술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교육적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비일비재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운 부분은 아직은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과 의례라 생각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이 항상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을 통해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이 더욱 더 튼튼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 뿌리를 내려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학교야말로 온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곳임을 일깨워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막연한 바람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리라 확신합니다.



## 절망 끝에서 발견한 나의 꿈, 나의 비전!

홍 은 기  
목천고등학교

### 나도, 그리고 학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학교에서 듣는 수업은 재미가 없었다. 나는 소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냥 그런 존재였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흥미를 끄는 건 없었다. 그렇게 지내다보니 막상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 ‘내가 뭐 그렇지’라는 말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아도 되었다. 정월 미달 때문에 추가로 겨우 합격한 목천고등학교는 천안 시내에서도 엉망진창인 학교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진 학생들만 모이는 곳, 통학하기엔 너무 먼 거리에 있어 생활도 불편한 시골학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그저 하루하루를 때우는 학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 학교에 내가 정말 가게 된 것이었다. 입학식부터 가기 싫었던 것은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 안타깝게도 거짓말이 아니었다.

수업 시간에 너댓 명을 빼고는 모두 잠을 잤다. 밤에 뭘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지 학교에서는 참 잘 잤다. 물론 나도 잤다. 친구들도 다 자니까 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알아들을 수 없던 수업 내용은 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였다. 사람과 건물, 그리고 교복만 바뀌었을 뿐, 지루한 하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는 담배 연기 때문에 코를 막고 불일을 봐야 했고, 학교 구석진 곳에서는 누군가가 맞았다는 소문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학기가 시작한지 며칠 지나기도 전에 재판받는다는 등, 숙려제라는 등, 이유조차 모르는 경우까지... 교실 곳곳이 비어갔다. 친구들이 이해는 되었다. 나도 학교에 왜 나오나 싶은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런 데에 와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열심히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들긴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못 느꼈다. 그저 고졸만 넘기면 뭔가 바뀌겠거니 했다. 그래서 지루한 일상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 ‘좋아한다’는 것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학교가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보통 국영수만 한다던 방과 후 프로그램에 바리스타나 미용, 자동차 정비 같은 특이한 반들이 생겼다. 2학년 때는 문과와 이과 말고 다른 과정도 생긴다고 했다. 학교 자체가 엔터테이너 회사가 된 것 같았다. 수업시간에 열심히 자고 중 치면 집에 가던 친구들은, 수업시간에 열심히 자고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집에 가기 시작했다. 꽤 재미난 모양이었다. 다들 한두 가지씩 뭔가 하는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졸업하면 뭘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흔히 말하는 ‘꿈’이 없는 학생이었다. 어떻게 다들 그렇게 꿈을 빨리 정하는지 신기했다.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재밌는 걸 그냥 하는 거란다. 선생님께 여쭙보니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것이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생긴다고 말씀해주셨다. 초등학교 때 트럼펫을 재미삼아 며칠 배워본 기억이 떠올랐다. 악기도 주고, 개인별 레슨 선생님도 붙여준다고 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다른 친구들이 뭔가 하고 있으니,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수업이 끝나도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보자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트럼펫을 붙게 되었다.



트럼펫이 어려운 악기라는 것은 이 때 처음 알았다. 생각은 많이 했는데, 그대로 소리는 나지 않았다. 레슨도 받고 연습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자 오기도 좀 생겼다. 잘 불고 싶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연습했다. 오케스트라 선생님과 레슨 선생님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셨다. 한번은 오케스트라 선생님이 ‘너는 트럼펫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셨다. ‘좋아한다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임을 할 때처럼 정신없이 트럼펫을 불어댄 것은 아니었다. 그냥 좀 더 잘 불고 싶어서 연습하고 배웠던 것뿐이었다. 다만 게임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허무했지만, 트럼펫으로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내 파트를 완주했을 땐 뿌듯함이 있었다. 다른 악기에는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유독 트럼펫만큼은 잘 불고 싶었다.

학교에서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공연을 했다. 연습한 만큼 되지 않아서 오는 속상함은 늘 따라다녔지만, 나와 다른 단원들이 함께 연주하는 화음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도 이때 알게 되었다. 나는 그저 내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트럼펫을 불면서 새롭게 알고 싶은 것도 생겼다. 트럼펫을 잘 불어서 나중에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예술 학교나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트럼펫만 분 음악인도 아니었다. 세계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열리는 진로 관련 활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평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잘 몰랐을 뿐, 학교 안에 진로 관련 특강이나 프로그램은 이미 많이 있었다. 실제로 직업에 종사하시는 뭘 수 있었고, 존경받을 만한 지혜를 가진 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경찰악대 단원’이었다. 멋진 제복과 트럼펫, 그리고 좋은 연주를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까지 정말 매력적이었다. 사실 경찰악대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경찰이라고 하면 으레 범죄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과학적으로 지문을 추리하는 것만 텔레비전에서 보왔기 때문이다. 경찰악대 단원이 되고 싶어졌다. 그래서 경찰악대 단원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 ‘열심히 한다’는 것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것 같다. 경찰악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필요했다. 왜 성적이 필요한지는 글을 쓰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필요하다니 공부를 해야 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자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업을 듣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수업 내용을 생각보다 이해할 만하다는 것이었다. ‘수업은 재미없다’는 해묵은 선입관이 깨지기 시작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다.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졌다. 내가 공부를 어지간히 안했던 모양이었다.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쉬는 시간이나 오케스트라 끝난 후 늦은 시간에도 교무실을 찾아갔다. 특히 찾아와 물어봐서 귀찮으셨을 지도 모를 모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셨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었다. 그저 경찰악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성적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다니 신기하기도 했다.

### 이제는 낯설어진 지난날의 나에게

우연히 접하게 된 기회가 내게 이렇게 크게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것 같다. 나는 트럼펫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마 오케스트라에 들지 않았다면, 더 돌아가서 목천고등학교에 오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일반 수업만 들었다면 요즘 흔히 말하는 ‘잉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작년의 나는 이제 낯설게 느껴진다. 나뿐만 아니라 작년의 학교도 내가 다닌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하다. 화장실에서는 담배 연기도 나지 않고, 곳곳에 움푹 파인 것처럼 비어있던 교실도 빈자리가 채워져 있다. 집에 가면 뒹굴거리며 쉬기만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것이 달라졌다.

이제 누군가 꿈을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경찰악대에 들어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싶다고.



## 내 꿈의 도약대 진로집중교육과정

이 주 영

남목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생긴 큰 고민 중 하나는 진로였다. 평소 체육을 좋아하던 나는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크게 자연계와 인문계로 나뉘어져 있고 예체능계를 위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나는 같은 반 친구들에 비해 더욱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자율학습 시간에도 ‘이런 공부가 나의 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하는 회의감이 들었지만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닐까?’하는 두려움에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답답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나와 꿈이 다른 아이들과 고민을 나눌 수도 없었고, 주변에 체대에 성공적으로 진학한 사람도 없어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다. 체육 선생님에게 체육에 소질이 있다는 격려도 들었고 진로 상담 선생님에게도 체육관련 학과 정보도 상담을 받는 등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지만, 체육 입시에 특화된 실기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울산은 체육 전문 입시학원도 서울에 비해 많이 부족해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사설학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선뜻 부모님에게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체육 입시 전문





학원들은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수업이 개설되어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 문을 나서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고민 중에 방과 후 진로집중교육과정에 대한 교내 방송을 듣게 되었다. 교육 과정 중 체육이 있었고 당연히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체육 입시 학원 수준의 전문적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 강당에서 수업을 듣는 게 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진로집중교육과정 체육 수업을 들으면서 이러한 나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에서도 비용을 들여 필요 물품을 갖추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또한 외부 체육 강사 선생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체대 입시에 특화된 수업이 진행되었다. 평소 체육대학을 가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어떤 종목으로 시험을 보는지,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실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 등 많은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진로집중교육과정 수업 때 시간을 집중하였다. 강사 선생님께서 체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많은 종목들에 대해 각 종목마다의 유의할 점이나 잘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해 주시고 직접 보여 주시면서 나의 자세를 하나하나 교정해 주셨다. 그 결과 처음에는 2학년 2학기 초에 제자리 멀리뛰기를 220cm밖에 뛰지 못했던 내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자세로 연습을 하여 2학년이 끝날 무렵에는 250cm나 뛸 수 있게 되었다.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고 실기 종목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흥미롭고 즐거웠다. 처음으로 체육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진로집중교육과정 체육 수업에서는 우선 기초체력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 때문에 매일 하루 두 시간의 수업 중 한 시간은 달리기와 기초체력단련을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은 대학 실기 종목에 맞는 전문적인 실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매일 운동을 해왔고 체육도 좋아해서 나는 내 체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상적인 운동을 한 것과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달랐다. 너무 힘이 들어서 중간에 쉬고 싶은 욕구가 넘쳤지만 나 말고도 다른 친구, 후배, 선배들도 다 같이 힘들지만 참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참고 운동을 계속했다. 만약 체대 입시 전문 학원을 다녔다면 쉽게 나태해 질 수



있었지만 진로집중교육 과정은 정규수업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가 힘들어서 빠지거나 병원을 간다거나해도 정규수업처럼 출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최대한 열심히 수업에 참여 하면서 평소 내가 부족했던 끈기나 의지를 더욱 키울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진로와 한결음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진로집중교육과정이 무학년제로 운영되면서 얻은 큰 선물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선후배이다. 기억나는 일화를 소개하자면 공 던지기 실기를 처음 배울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 기록이 안 나오고 어깨도 아팠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안 되는지 너무 답답해하고 있을 때 같이 수업을 듣는 3학년 형이 점심시간에 나를 따로 불러서 운동장에서 공 던지기를 가르쳐 주었다. 나의 자세를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말해주면서 나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때 나는 그 형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나도 다른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들어서인지 평소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잘 하지 않던 진로 고민도 이야기 하게 되었고, 같은 학교라서 느끼는 소속감 이외에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결속력이 생기게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챙겨주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보의 교류를 통해 내가 가고 싶어 하던 진로의 방향 말고도 다른 다양한 방향의 체육 관련 진로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목표를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 진로집중교육과정을 들으면서 내 학교생활에서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은 수업시간과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졸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 성적이 더 떨어질 지도 모른다는 주변 어른들의 우려와는 달리 점점 체력이 좋아지고 운동에 익숙해지면서 야간 자율 학습시간 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시간에도 잠이 잘 오지 않고 잠이 오더라도 체력으로 버틸 수 있어서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좋은 성과도 있었다. 또한 체대 진학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기기도 적성에 맞는 운동을 하니까 학교생활이 지겹지 않았다.

진로집중교육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나만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2학년 때 같이 수업을 듣던 3학년 형들이 내가 2학년말이 되자 다들





대학 합격 통지서를 선생님께 들고 왔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더욱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당당히 후배들과 선생님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3학년이 되어서도 나는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바로 진로집중수업과정을 신청했다. 3학년 때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교의 실기를 중심으로 실기 연습을 한다. 2학년 때는 막연하게 그냥 체대를 가고 싶다고만 생각 했지만 3학년 때 진로집중수업을 통하여 어떤 대학에는 어떠한 실기를 준비해야하고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해선 성적을 얼마만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세워졌다. 덕분에 공부와 나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다.

진로집중교육과정 덕분에 학교에서 체대입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었고, 체대 실기 준비를 하면서도 학업에 장애가 생기지 않아 오히려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비슷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선, 후배간의 결속력이 형성되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나의 진로와 목표를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내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졸업을 하게 되더라도 내년 그리고 그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로집중교육과정이 개설되어 꼭 체육 쪽을 진로로 하지 않아도 육군사관학교, ROTC, 경찰대학 등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나와 같이 진로집중교육과정의 이점들을 직접 느끼고 체육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 나도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강한솔**  
진건고등학교

## 1. 한없이 작았던 나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이다. 그것도 모자라 농어촌 지역에 있다. 1학년을 마치면서 내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어쩌면 창피한 일이기도 하겠구나하는 것이었다. 뉴스를 보면 소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아니었고 심지어 어느 서울의 명문대에서는 아예 입시 서류도 받지 않는다는 뜬소문(?)으로 마음을 다치기도 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원에 등록해 보기도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지각하기 일쑤고 심지어 피곤하여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었으며 솔직히 경제적인 부담도 커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다. 그리고 수시를 목표로 진학계획을 세울 때 많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하며 자꾸만 작아지는 내 모습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2학년이 되어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 2. 너희들은 학원으로 나는 학교에서

처음 토론대회를 나갔을 때였다. 잘 해서 준결승까지 갔었다. 그러나 준결승에 상대는 서울의 특목고 학생들이었다. 교복만 보고도 무서웠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으며 개네들이 하는 말은 다 옳은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나중에 심판관 선생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특목고 학생의 논리가 틀렸는데도 왜 그것을 보지 못했냐고 하셨다. 그 때 깨달았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서울의 고등학교나 학원에 비해 질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바꾸고 나니 우리 학교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오히려 더 알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 2-1. 우리도 논문 쓸 수 있어

우리 학교의 경우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선생님이 만들어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선생님을 초빙한다. 스스로 만드는 동아리이다 보니 친구들과 신나게 활동은 하지만 활동에 특징이 없었다. 이 때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이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의 하나였던 학생논문쓰기였다. 보통 논문을 쓰는 것은 과학고나 특목고 학생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많았다.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워 절대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나 학년별로 논문조가 결성되어 당시 2학년이었던 나로서는 후배와 선배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실제 갈등이 심하여 멤버가 교체되는 일도 겪었지만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논문은 ‘무료 인터넷 강의(EBS)와 유료 인터넷 강의(이투스, 메가스터디, 강남인강 등) 비교를 통한 교육의 기회와 질의 평등 확대 방안 제시’라는 주제였고, 설문지도 실제 우리가 만들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어려운 통계프로그램을 쓴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계산하여 우리 손으로 논문을 완성했다. 같이 모여 얘기할 시간이 부족하면 동아리의 카페를 만들어 의사소통하였고 선생님과 피드백 또한 카페에서 받았다. 1년 동안의 장기 프로젝트이기에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논문의 완성은 나와 내 동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갖게 해주었다. 또한 이 경험은 글을 쓰는 요령을 배우게 하여 3학년 때 동아리별로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는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하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커다란 재산을 얻은 것 같다.



## 2-2. 우리도 세미나 할 수 있어

동아리 부원들과 내 자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활동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방과후 수업을 하는 것이다. 동아리 시간이 많아졌다고는 하나, 논문을 쓰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서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일반고 역량 강화프로그램 중 하나인 우리는 농산어촌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 진로에 맞는 경제경영 관련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과 후에 남아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다. <앵그리 경제학>이라는 책을 단원별로 읽고 매주 발표자를 한명씩 정해서 발표하게 하였다. 동아리원들은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을 동아리 카페에 올리면(댓글형식) 발표자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조사하고 공부해서 그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된다. 발표를 다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약 1시간동안 토론을 하였다. 내가 맡은 부분은 '김치만두 1+1행사의 진실'이었는데 효용과 사중손실이라는 경제 개념을 적용시켜 발표하는 것이었다. 평소 1+1행사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 입장으로써, 1+1제품을 사는 것이 굉장히 알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란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은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에 적용을 받아 1+1 제품을 사는 것은 비합리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듯 동아리 시간의 보충을 별도 농산어촌 지역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프로그램으로 보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그것에 충실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집약적이고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었다.

## 2-3. 우리도 토론공부 할 수 있어

우리 활동의 정점은 <디베이트 클래스> 활동이었다. 실제 토론대회 나가서 쓴맛을 보기도 했고, 학교수업하기도 빠듯한데 토론을 위한 수업은 우리와 거리가 먼 일인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토론을 위해 학원에 다닐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일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에 디베이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프로그램은 5주 동안 진행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보통 이런 수업을 외부에서 받게 되면 개인당 10만원이 훨씬 넘는다던데 우리는 학교지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토론의 절차와 방법, 논리적으로 말 할 수 방법과



팁 같은 것을 알려 주었다. 또한 한 주에 하나씩 주제가 정해졌고 그에 따른 자료도 제공받았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 대형마트 심야영업 규제, 기여 입학제, 부유세 등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나 같은 경우 특히 기여 입학제를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때에 반대 입장에 서서 입안을 담당하였다. 직접 용어 정의를 하고,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를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각하여 발표해보는 연습은 평소 말재주가 없던 나에게 말을 잘하는 것은 이런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매주 토론 선생님과 이메일로 입안 수정과 전 토론에 대한 복습을 써서 피드백을 받은 경험은 글을 쓰는 능력 또한 함양시켜주었다. 비록 토론의 자료가 미리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를 조사해보고 토론의 반박 내용을 미리 짐작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생각하는 능력도 신장시켜 주었고, 다양한 토론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상의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비판적인 안목도 갖게 되었다. 이렇듯 <디베이트 클래스>의 활동은 세상과 사물을 다양한 시각을 기르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학문적 소양을 넓혀주었다. 더 나아가, 말을 할 때도 상호존중의 자세도 배울 수 있었다.

### 3. 길러진 인재가 아니라 스스로 큰 인재

지금 3학년이 된 나는 수시를 준비하고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무엇을 써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겪은 갈등해결 방법 그리고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이미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내 말하기 대회, 인문 학술 대회, 프로젝트 보고서를 할 때에도 당당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한탄’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해가는 성숙한 인재로서 거듭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 비전(碑前)에서 비전(vision)을 꿈꾸다.

황 정 현

비전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나는 그저 노는 것만 좋아할 뿐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러던 중 친누나가 우연하게 이벤트에 당첨되어 뮤지컬 ‘루나틱’을 보러 가게 되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연극이나 뮤지컬을 수업시간이나 TV를 통해 짧게 접했을 뿐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나는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공연장에 가게 되었다. 뮤지컬 시작과 함께 배우들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며 등장했다. 그 때 한 배우가 갑자기 나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아주 가까이.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는 사이 뮤지컬이 시작되었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보여 주며 중간 중간 계속해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연을 끌어가는 배우들의 모습에 나는 매료되고 말았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고 마냥 좋았다. 한 순간도 눈을 떼 수 없게 만드는 배우들에게 폭 빠져 있는 사이 어느새 공연이 끝나 버렸다. ‘벌써 끝났네’ 하는 아쉬움 뒤에 오는 것은 뮤지컬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그 뒤 미친 듯이 뮤지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작품들이 유명하고 어떤 노래가 있는지, 공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배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다. 결국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는지’라는 것을. 공연에 몰입하는 배우들의 모습, 그들의 공연을 지켜보는 관객들. 세상의 시간이 멈추고 그 공간, 그 시간만 존재하는 것 같았던 그 공연 속에서 나는 어느새 지켜보는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무대 위의 배우로 서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가슴에 담게 된 것이다.

중 3이 되고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써야 할 시기에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당연히 예고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열정으로만 꿈꾸던 예고 진학은 당연히 꿈에 불과했고 현실은 일반고 진학이었다. 최후의 선택지로 남은 것은 비전고와 다른 한 곳이었다. 비전고는 신설 학교로 내가 첫 입학생이 되는 것이었고 다른 한 곳은 주위 말을 빌리면 예체능으로 진학하는데 조금은 유리하다고 소문난 학교였다. 두 학교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결국 최종 선택은 비전고였다. ‘연극부나 뮤지컬부가 없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다. 신설인 만큼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된다. 우리들이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란 생각으로 비전고에 입학원서를 넣었고 결국 합격하였다.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 연극부에 가입했고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꾸려나갔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지도해주시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들만의 연습으로는 많은 것이 부족했다. 배우고 싶고 실력을 쌓고 싶은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속이 탔다.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부에서 예술교육사업 중 하나로 학생뮤지컬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우리학교가 선정되었다는 것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연극부가 뮤지컬부로 바뀌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고 이 변화들은 나의 꿈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단이 되어 주었다.

첫 변화는 전문적으로 연기를 지도해주시는 선생님이 생긴 것이다. 가슴에 열정만 가득 찼을 뿐이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던 나에게 제대로 된 기회가 온 것이다.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니 정말로 내가 뮤지컬을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설레고 긴장되었다. 뮤지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던 나에게 뮤지컬 수업은 다양한 기본기를 갖추게 해주었다. 특히 처음으로 연기수업을 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해 어색해하는 우리들에게 선생님께서는 놀이 같은 수업을 진행하셨다. 놀이라고 생각했더니 두렵지 않았다. 먼저 용기를 내 친구에게 말을 걸고 다가갔더니 자신감이 생기고 사소한 떨림이 사라졌다. 이게 연기의 기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도 이때의 마음을 떠올리게 된다. 나는 지금 관객과 즐거운 놀이를 시작하는 것이니 떨지 말자고.

두 번째 변화는 공연 관람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학생뮤지컬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우리들에게 다양한 뮤지컬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주어졌다. 공연을 보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망설이고 또 서울까지 혼자 가서 공연을 보기가 부담스러웠던 나에겐 가뭄의 단비 같았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무인도에 표류된 국군과 인민군의 화해를 담아 낸 ‘여신님이 보고 계셔’,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낸 힐링 뮤지컬 ‘빨래’, 서양의 고전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창작한 뮤지컬 ‘레미제라블’ 등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 무대 뒤에서 공연하신 배우 분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는 기회까지 덤으로 얻어 배우를 꿈꾸는 나에게는 기분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내가 직접 무대에 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교내 공연과 외부 초청 공연을 위해 연습하고 준비한 시간은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해 주었다. 첫 공연을 위해 평택 진위초등학교 학생들, 은혜 중·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과 같이 연습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빛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많은 관객들이 지켜보는 큰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경험은 나에게 무대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배우로서 연기하는 재미,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때로는 공연에 대한 긴장과 부담감으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정도 무대에서 긴장한다면 앞으로 더 큰 무대에는 설 수 없을 것이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견딜 수 있었고 공연의 기회를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준비된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이 보여주는 뜨거운 호응은 꿈에 대한 열정을 더 크게 만들어주었다. 처음 뮤지컬을 접하고 배우가 되기를 꿈꾸면서도 나는 어떻게 해야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는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뮤지컬 배우의 가장 기본인 ‘노래’와 ‘춤’, ‘연기’에 대해 배우려고 해도 서울에 있는 몇 군데의 학원에서만 가르칠 뿐 평택에서는 가르치는 학원을 찾을 수 없었다. 평택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며 배우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강사를 찾아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 레슨을 받는 것은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과목을 따로 배우면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도 힘들다. 비전고에서 뮤지컬을 배우면서 난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설학교에 가서 새롭게 연극반을 만들더라도 뮤지컬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나의 무모함이 결국 비전고를 선택하게 했고 그 선택이 나를 행운의 길로 데려가 주었다.





예술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뮤지컬을 배우며 꿈을 키워온 나의 최종 목표는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그 꿈에 빠지도록 만드는 배우’가 되는 것이다. 중학생 시절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어느 배우처럼 나도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배우가 되고 싶다. 또한 배우로서 성공한 후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고교 시절의 내가, 예체능을 배우기에 불편함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전 고등학교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꿈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나도 뮤지컬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마음에 작은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 새로운 비전(VISION)을 만들어준 일반고 교육역량 프로그램. 내가 얻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기회가 사라지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꿈을 갖고 키워가는 청소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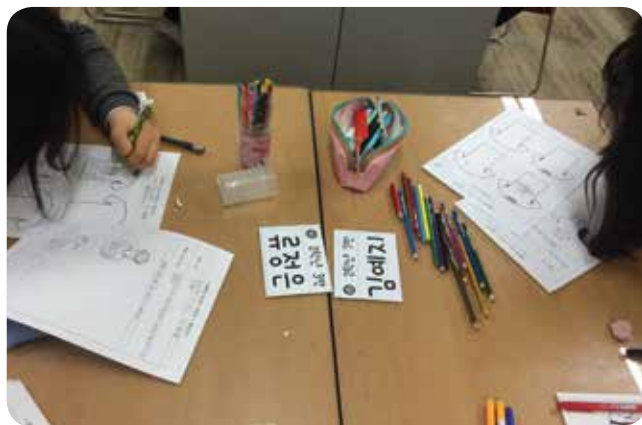
## 열 번의 수업으로 달라진 나

김 예 지

경화여자고등학교

최근 들어 디자인에 대해 관심이 늘어서 진로를 디자인 관련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가 예술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고등학교라서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체능 쪽 관련 활동이 극히 적은 편이다. 미술을 하고 싶고 미술 수업을 듣고 싶지만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미술수업이 없고 3학년이 되어서도 문과학생들 중에서 선택하는 학생들만 미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기위해 미술학원을 다녀야 하나 미대를 갈 수 있을까하며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율특화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Thinking 과 웹 애니메이션 수업을 각각 수요일과 토요일에 개설하게 되면서 기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디자인에 대해 정말 배워보고 싶었던 까닭에 나에게 이 수업은 더없이 특별했다.

디자인 Thinking 수업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먼저 평소 미술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최근 들어 직업적으로 시각디자인관련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디자인에 대해 배워보고 싶어서였다. 수업에 참여하면서 미술 관련 직업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러 분야가 많았지만 디자인이라는 한 분야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어 제품 디자이너가 있으면 컴퓨터 모니터 디자인하는 사람 마우스 디자인 하는 사람 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에 놀랐다. 픽토그램 수업을 들으면서 평소에 지나치던 표지판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고 그 그림에 담긴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공부하면서 표지판 색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모양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패턴 디자인을 하면서 패턴은 옷에서나 사물에서나 많이 볼 수 있었던 패턴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단순히 같은 모양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도 다양하게 색깔도 다양하게 시도해보면서, 색깔 하나로 패턴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패턴이 엉망이 되기도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패턴작업은 모양만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색의 조화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발 디자인을 하면서는 평소 신발을 살 때 브랜드와 색깔만 보고 샀는데 디자인을 직접 해보니 신발 디자인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땅과 맞닿는 깔창부터 신었을 때 느낌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했다. 또 미끄럼 방지용 인줄만 알았던 신발 깔창에까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캠페인 티셔츠 디자인 수업 때는 피켓을 들고 홍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티셔츠 한 장으로도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주제에 맞게 디자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디자인을 생각해 내는 것이 좀 힘들었다. 광고 디자인 수업도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편이라 광고를 많이 보는 편이다. 광고란 물건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적절한 음악과 효과 장면 글귀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게끔 하는 것인데 이 많은 작업을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깐 내가 뭘 광고하려는지 모르겠고 음악도 뭘 넣어야 하는지 답답했다. 나는 겨우 15초, 30초로만 생각했던 순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답답하기까지 한 과정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창작의 고통을 제일





많이 느낀 시간이었다. 한편 제품디자인을 하면서는 제품 하나 하나에 의미를 담으려고 했다. 어떤 제품은 왼손잡이를 위해서, 또 어떤 제품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등등. 그런데 제품은 그게 다가아니라는 것도 알게되었다. 요즘은 시각적으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모양까지 예쁘게 편리하게 만들어 낸다. 이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배우면서 모든 사람이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처음 이 수업에 들어올 때 걱정을 많이 했었다. 10번의 짧은 수업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한번 경험해봄으로써 뭔가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 지식이나 상식은 늘어 가는데 ‘생각’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표지판 디자인부터 신발, 광고, 티셔츠, 제품까지 디자인을 해보면서 매 순간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수정하고 디자인이 만들어져갈 때면 내가 만든 디자인이라 그런지 애착이 가고 뿌듯했다. 꼭 미래에도 이런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인문계 고등학교라 대학교 가기 전에는 이런 기회가 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직접 디자인 한 것을 발표도 해봄으로써 내가 진짜 디자이너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정말 다른 날은 몰라도 수요일 만큼은 학교 수업이 아닌 이 수업을 들으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나에게 많은 의미를 준 수업이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미술에 관한 배경지식이 많이 쌓였다. 만약 2학기에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평소에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 때 등 무슨 활동을 할 때 직진하다가도 유턴을 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선이 깔끔하지 못하고 지저분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두려웠다. 하지만 디자인 Thinking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조언과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면서 내 작품과 마주하니 자신감이 늘었고 이제는 자신 있게 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 같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다. 또 평소 생각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경우를 두고 생각하게 되고 어떤 디자인이나 포스터 광고를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다. 토요일 웹 디자인 수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장래희망이 시각 디자이너라 웹에 관한 일도 관심이 있었고 꼭 한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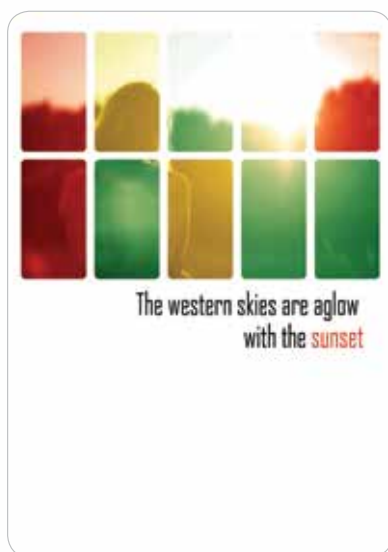
배워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포토샵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진짜 사진을 합성하거나 보정과 같은 편집만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10번 수업에 걸쳐 정말 다양한 수업을 했다. 처음에 생각했던 합성과 배경화면 만들기과 같은 포토샵의 기초를 배우면서 다시 한 번 그 툴의 기능에 대해 곱씹어 보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텀블러 안에 들어갈 속지를 포토샵으로 편집하여 디자인하는 제품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디자인을 하는 동안 창작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요일 수업(디자인 Thinking)을 들을 때 생각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 보다 더 빨리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컴퓨터로 해서 그런지 디자인이 깔끔하고 선명했다. 손으로 그리는 그림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다. 그 다음 시간에는 움짤을 만들게 되었는데 포토샵으로 움짤을 만든다는 것이 놀라웠다. 사진 편집만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짧게 움직이는 새로운 기능을 배우게 되었다. 그다음 주 수업으로 웹페이지 만들기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완성품을 보면서 포토샵을 이용해 똑같이 따라 만드는 작업이었다.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창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데 그 창을 만드는 데 이렇게 많은 작업이 들어가는 줄 처음 알았다. 색깔 배치부터 레이어 배치까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다 만들고 나니 자신감이 생겨 진짜 시각디자이너가 된 기분이었고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수업으로 웹툰 그리기를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포토샵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프로그램마다 기능이 다 달라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다.

웹 디자인 수업은 토요일 날 열리는 강좌라 금요일 날 야자하고 집에 와서 폭 자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많았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배우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평일에 학교 가는 것보다 힘들기 보단 즐거웠던 것 같다. 평소 책상 위에 보던 책이 아닌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고 포토샵의 세계는 무궁무진 하다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랐던 것 같다. 손으로 그려서 디자인을 하다가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편집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하다 보니 진짜 내가 시각 디자이너가 된 기분이고 미래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 같았다.



이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는 나에게 재능이 있을까 이 길로 가도 괜찮을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와서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며 나름의 고민이 정말 많았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에게 칭찬도 듣고 친구들도 내가 한 디자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고 조언도 해주어서 확신이 없었던 내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나는 이 길로 가야지라는 길이 없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내 길을 정하고 나니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들이 보였다. 진로에 대한 준비가 늦었나 싶어 조바심을 내던 것 역시,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된 후로는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향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디자인 Thinking도 웹 디자인도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경험이었고 10번의 수업 동안 다른 생각 하나 하지 않고 오롯이 집중하면서 수업에 빠져든 나를 볼 수 있었다. 나에게 이런 집중력이 있었나 할 정도로 신기했고 다시 한 번 디자인에 대해 매력을 느낀 것 같다. 또 나와 마음이 맞고 같은 길로 가려는 친구들과 모여서 활동을 하니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고 함께여서 더 잘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더 나아가 수업이 아닌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았다. 아쉽게 1학기는 끝이 나지만 2학기에도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은 학생으로서 공부에 더 집중하여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틈틈이 디자인 공부도 하면서 더욱 발전한 내가 되길 기대한다.



## 꿈의 마중물이 되어 준 물리 R&E 프로젝트 학습

김 승 호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입시 위주의 공부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교과 시간에 과학 탐구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대해 배웠지만 결국 그것도 입시와 연관된 지루한 공부일 뿐이었습니다. 탐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어가고 있던 중, 2학년 때 물리 선생님의 권유로 학교에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대학교와 연계 추진한 'R&E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과학과 수학까지 총 네 분야로 나뉘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 물리의 '비정질 금속의 초고주파 자기임피던스 효과'라는 주제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물리 R&E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는 물리 I 교과 시간에 리액턴스를 배웠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리액턴스와 관련한 심화 개념으로 회로의 임피던스에 대해 배웠었기에 교과 시간에 배운 것을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고, 과학 탐구와 관련하여 흥미를 잃어가고 있던 저에게 다가온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기회였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였던 만큼 저는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목표는 소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집에 등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논문의 목적을 간단히 밝혀 보자면 기존의 자기 센서들은 소형화가 가능하지만 감도가 좋지 않거나, 감도가 좋지만 소형화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개선이 요구됩니다. 한편, 임피던스가 외부자기장에 따라 변하는 현상인 자기임피던스 효과, 특히 일정 변화율 값이 50% 이상인 경우를 거대 자기 임피던스 효과를 이용하면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대 자기 임피던스 효과를 갖는 대표적인 물질인 비정질 마이크로 와이어를 활용하여 센서를 만들면 낮은 소비전력, 높은 감도, 높은 분해능, 그리고 작은 사이즈를 모두 만족 할 수 있습니다. 초고주파를 만드는 것이 수월해진 최근에 초고주파에서의 자기 임피던스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주파수에서 자기임피던스 효과를 측정해서 어떤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민감도를 갖고, 자기 센서로 이용하기에 최적인 회로 주파수를 제시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기초 개념부터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임피던스의 이해를 가장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개념 강의 시간 도중에 간단한 회로 구성을 통해 직접 실험하여 위상차를 통해 임피던스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과 시간에는 그저 수식과 선생님이 그려주는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위상도를 통해 임피던스나 리액턴스에 대해 배웠었는데, 간단한 실험을 통해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모눈종이에 직접 그려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보면서 임피던스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SQUID나 홀 센서와 같은 자기 센서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선행 논문에 있는 실험을 실행하기 위해 실험 장비와 관련된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는 활동을 매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지식을 통해 실험을 수행하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임피던스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 손으로 신호발생기를 돌려가면서, 오실로스코프에 그려진 그래프를 분석하였습니다. 소논문을 위한 최종 실험으로는 교수님께서 선행논문을 작성하실 때 직접 사용하시고, 프로그래밍을 하신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비정질 금속의 가장 민감한 주파수 값을 찾아내기 위해 조원들과 수도 없이 많은 그래프를 분석하였고, 교수님의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에 대해 비정질 금속의 임피던스를 측정해보는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비정질 금속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주파수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들도 파워포인트를 통해 직접 그려야 했는데, 회로를 최대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원래 그림은 인터넷 상의 그림을 따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을 모두 직접 그린다는 사실을 알고, 논문이란 것이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원들과 함께 토의를



자기임피던스 측정 장치 모습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논문을 완성해 가면서, 함께 지식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일이며, 내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논문을 쓰게 된다면 더더욱 즐겁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과학과 공학에 관련된 분야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재차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논문이 완성되었을 땐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노력의 결실이었던 소논문이 ‘과학영재교육학회지’에 등재되었을 때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는 물리 R&E 프로젝트 학습을 계기로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좋았던 것은 소논문을 쓰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리 I 수준의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선행 논문들을 이해할 정도로 지식을 쌓게 되었고, 쌓은 지식으로 직접 소논문을 써보는 과정은 마치 텅 빈 평지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언가 산출물을 만든다는 행위는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좋았던 것은 모르는 개념에 대해, 또 때론 황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교수님과 면대 면으로 상담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던지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고,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권위자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물리 R&E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 첫 공식적인 산출물을 작성하면서 과학연구에 흥미를 느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협력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산출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으며 아직 저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더 많은 지식들을 쌓고, 실생활에 접목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이 19년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R&E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흔치않은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공학이라는 분야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것입니다. 물리 R&E 프로젝트 학습은



저를 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 공부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안목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기르게 해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Research and Education 프로젝트 학습은 입시 위주의 수동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각 분야의 권위자들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실험에 직접 참여하고, 소논문을 작성해 봄으로써 진로는 물론,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기르게 해주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과학고가 아닌 이상 무언가 전문적인 과학 활동을 해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처럼 학교의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학생들에게 제가 느꼈던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랬고, 모든 이공계열 친구들이 아쉬워하는 점은 자신들이 배운 지식이 어디에 쓰이는지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아리활동을 통해서도 사실상 전문적인 경험을 해 볼 수는 없다는 점 역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학과 연계한 R&E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해 본다면, 교과목에 대한 흥미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리 R&E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좀 더 깊은 안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진로에 대해 다양한 분야로도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일반고에서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학교들의 관심을 통해 R&E 프로그램이나 유사 프로그램을 보편화 시켜 많은 후배들이 저와 같은 흥미롭고, 매력적인 경험을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이희복 교수님, 김용실 선생님, 이상래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 미술치료로 '나' 돌아보기

이 인 혜  
신명고등학교

제가 수강한 교육역량 강화수업은 미술치료입니다. 미술치료를 통해 저 자신을 더 알아가고 내면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희망 직업은 사회복지사인데 제 장래희망에 미술치료가 저를 알아감으로 인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으로 생각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치료의 사전적 의미가 심리치료의 일종으로 미술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기분의 이완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라면 제가 수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미술치료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이 감명 깊었던 것을 그림을 통해 깊이 있게 상대방과 교류하면서 숨겨져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이 수업을 듣기 전 저는 미술에 소질이 없어서 미술로 저를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옹기 전달 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여 그저 열심히 그려야겠다고 다짐하며 주제에 대해 남들보다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린왕자의 한 부분을 들려주시고





그 내용에 관한 주제인 ‘나의 바오밥 나무’, ‘어린왕자 행성과 나의 행성’,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존재는?’, ‘내 인생의 위기’, ‘부탁, 거절 그리고 수용’, ‘나의 무서움과 만나다’, ‘나의 위로자’, ‘나의 장벽’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일들을 회상하며 저의 부족한 점이나 제가 생각한 어린왕자와 저의 성격, 제 주위의 사람들, 위기의 순간, 상대방과의 소통, 두려웠던 존재, 저의 장벽을 도화지에 표현해 나갔습니다. 첫 연필을 잡은 저는 어린왕자이야기를 듣고 어린왕자가 겪은 시간들에 저를 대입시키며 ‘내가 어린왕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며 제 주위의 사람이나 일어났었던 일을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8개의 주제 중 가장 어려웠던 주제는 ‘부탁, 거절 그리고 수용’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짝을 이루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하나의 물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물체의 특징과 상대방이 원하던 특징이 적절하게 표현 되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내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게 그 특징을 묘사하려고 노력을 한 끝에 상대방이 요구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렸던 달팽이가 부탁과 수용을 통해 마침내 상대방이 원하던 모습이 그림으로 표현되었을 때 상대방이 무엇을 원했었는지 생각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았을 때 저도 덩달아 기분도 좋아지고 뿌듯해졌습니다. ‘부탁과 수용 그리고 거절’을 통해 상대방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상대방과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절을 당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8개의 주제 중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준 존재는?’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활동 부분에 가까이 지내며 익숙해진 사이 때문에 소중한 줄 모르고 지내기 쉬운 제 곁에 있는 사람들 한명 한명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말을 잘 들어 주었기 때문에 한명을 고르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은 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하나로 정리해보니 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집중하여 들어주고 공감하여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한 대상으로 표현할지 오랜 시간 고심하던 찰나, 머리에 딱 떠오른 것이 ‘헬로 키티’였고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로 키티를 선택한 이유는 입이 없고 오로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의미의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에 스스로를 동화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과 다른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배려’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아가 저만의 헬로 키티가 원래 헬로 키티와 다른 점을 꼽자면 저의 ‘헬로 키티’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줄 뿐만 아니라 옆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위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평상시에 익숙함에 속아 당연한 줄 알았던 제 주위의 한 명 한 명마다 그 사람이 제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업이후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하기로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의 장벽’에서는 주제를 듣고 나의 장벽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제가 넘지 못한 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본 끝에 알게 된 나의 장벽은 ‘깊게 파고들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이점으로 본다면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해야 할 일들에 집중을 잘하여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과 연관 시킨다면 사회복지사로서 저와 타인의 마음과 상처를 헤아리는 방법을 탐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소질이 없는 저는 고민했던 것과 달리 선생님께서 조언해주신 것처럼 그림과의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표현하다 보니 처음 그린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언니, 오빠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마음을 공개 하고나니 혼자 끙끙거리며 생각했던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인 성적

올리기, 지금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나아가는 방법 등을 적어보면서 중요한 것들 순으로 하나둘씩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의 저는 직진만 하고 주변을 두루 보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던 저에게 미술치료시간은 그동안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삶에 대해 고민도 하고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함께 수업을 들었던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상황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 비슷한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지금의 생각들이 대비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참여했던 구성원모두 자신의 진심을 표현해주었기에 저 역시 더 많이 말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학기 수업을 마치고 이때까지 한 작품들을 보면서 수많은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당시에 작품을 표현하면서 느꼈던 기분이나 그 때 들었던 말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그 당시의 상대방이 내게 베풀었던 배려와 이해를 깨닫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해 많이 반성하였고, 주위사람들에게 받았던 관심을 이제야 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미술치료 수업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변화의 시작은 학교로부터 ‘주간뉴스’와의 만남

정재욱  
협성고등학교

우리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시간에 ‘역량 강화’ 수업이 있다. 선택하여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사교육을 받지 않고 원하는 선생님께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우리는 역량 강화 수업을 통해 정규 수업 때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과학 실험, 모의 토론 등도 할 수 있다. 나는 처음에는 수학 관련 수업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나에게 수학은 긴급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선택하는 순간이 왔을 때 ‘주간 뉴스’가 눈에 쏙 들어왔다. 수업 제목과 강의 개요를 봤을 때, 매주의 시사 이슈를 다루는 수업 같았다. 꽤나 재미있을 것 같았다.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경쟁자가 많아서 신청하지 못할까봐 얼른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 봤는데 괜히 호들갑을 떠는 것 같기도 해서 살짝 머쓱했다. 어쨌든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에 내심 만족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수업을 신청한 것도 면도 없지않아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에 임했다. ‘주간뉴스’는 우리나라 혹은 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 뉴스를 매주 선생님께서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신 후, 모둠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하고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다. 예상대로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개념부터 현황까지 다루어주셨다. 첫 시간이라 모둠별로 토의를 할 때는 같은 모듬이 된 친구들과 살짝 어색하긴 했어도 토의를 하다 보니 금방 말문이 트였다. 수업 내용을 활동지에 기록하기도 하고, 토의 내용 발표도 하는 중에 금세 첫 수업 시간이 지나갔다. 앞으로 발표 할 기회가 더 많을 텐데, 아무래도 내 진로를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편안하게 말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에서 다루었던 주제 중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요즘 우리는 너나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주간뉴스’에서 들을 수 있었다. 중국의 신흥 대기업 샤오미에 관한 이야기였다. 샤오미의 별명은 ‘대륙의 실수’라는데 가격에 비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다. 샤오미의 장점은 다른 기업에서는 더 비싸게 파는 첨단 기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것이다. 샤오미의 성장 전략 중 하나는 애플 모방이었는데 회사 사장부터 애플 스티브 잡스의 팬이라 사장이 신제품 발표를 할 때면 스티브 잡스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입었던 옷, 발표 형식까지 따라하는 사진을 봤다.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웠는데 사실 이 기업은 5년 만에 세계 5대 스마트폰 회사가 된 괴물기업이었다. 샤오미와 관련한 기사들을 보며 최신 전자 기기 시장이 이토록 급변하는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 시장에서 중국의 성장세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임을 알 수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몇 번 봐서 관심이 갔던 ‘드론’이 수업 주제였던 적이 있다. 드론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인 항공기인데, 우리는 드론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론의 사용 분야, 드론의 장단점을 영상과 사진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라면 드론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모듬별로 토의 했다. 셀카용 드론도 있다고 하기에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이 조그만 날아다니는 촬영용 카메라 따위가 100만원이 넘는 것도 있다니... 나는 100만원이면 정말 거짓말 안하고 1년 동안 꽤나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셀카 하나 찍자고 1년 생활을 포기 할 수 없기에, 나는 사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 우리 모듬의 대부분은 높은 가격과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의 확대, 드론에 달린 프로펠러로



인한 사고 가능성 때문에 사지 않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 생각엔 한국에서 드론이 상용화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관련 소식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겠다.

‘주간뉴스’라는 수업 제목에 딱 맞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해 수업한 적도 있었다. 당시 나는 메르스가 한국에까지 옮겨온 줄은 알았지만, 메르스가 어떤 것이고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했다. 선생님이 전에 유행했던 질병인 ‘사스’와 비교하여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초기대응이 조금만 더 체계적이었다면 이렇게 심하게 퍼지지는 않았을 텐데 싫어 무척이나 아쉬웠다. 일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방이니까 수업 시간에 들은 메르스 예방법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어야겠다 싶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가장 최근 수업에서는 이슬람 무장 단체 ‘IS’에 대해 다루었다. 우리는 이슬람의 개념에서부터 이슬람교의 종파 분쟁, IS 이름의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뉴스에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스스로 알아보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던 내용인데 역사적 차원에서 접근해가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듈별로는 각기 다른 주제로 토의를 했는데 우리 모듈은 ‘이슬람권 여성들의 몸, 목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가리는 전통 복장을 문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억압인지’에 대해 토의를 했다. 나는 억압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아무리 문화라지만 개인의 자유는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여성에게 그 의무가 과도하게 지어지는 것은 양성평등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물론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그들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열린 사고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다. 평소 신문을 규칙적으로 보는 편이 아니긴 했지만, 수업을 통해 이슈 되고 있는 사건·사고를 접하면서 내가 너무 신문을 안 보고 살았구나 싶었다. ‘주간 뉴스’를 통해 이제는 내 상식이 꽤나 풍부해 진 것 같다. 항상 TV를 볼 때면 뉴스는 바로 채널을 넘겼던 나지만, ‘주간 뉴스’를 한 날에 뉴스를 보면 마치 내가 기자라도 된 것처럼 이어질 내용이 예상되기도 했고, 뉴스 내용이 머릿속에 쑥쑥 들어왔다. 역량 강화 수업을 통해 평소 수업 때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배울 수 있었고, 친구들과 토의를 하면서 내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발표를 하는 능력도 커졌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든 다른 학교든 정해진 수업을 수동적으로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여 정규 수업 때는 할 수 없는 활동들을 하면서 공부만큼 중요한 다양한 것들을 알아 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 꿈을 굶는 제빵사

이 한 솔

유일여자고등학교

내 꿈의 시작은 별로 특별하지 않았다. 조그마한 오븐을 샀는데 사용설명서와 함께 팔려온 책자에 쿠키 만드는 방법이 있어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만들다보니 흥미가 생겼던 것에서부터였다. 쿠키 만드는 일은 손으로 하는 것이라면 뭐든 좋아하는 내 적성과 너무 잘 맞았다. 또한 TV를 보면서 친구들은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요리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고 ‘요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과제빵과 아울러 요리사에 대한 꿈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나의 꿈을 부모님께서는 쉽게 찬성하지 않으셨다. 많은 시간 서서 고생해야 하고 때론 무거운 재료를 날라야 하고 반죽하는 일은 관절에도 무리가 있을 만큼 고생하는 직업임을 아셨던 까닭이었다. 부모님과의 길고 긴 갈등 속에 나는 내 뜻을 밝히며 결국 부모님을 설득했다. 그리고 처음 관심을 가졌던 제과제빵을 하기 위해 혼자 학원을 알아보았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자마자 등록을 했다. 학원은 수강생이 많아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형식적인 것을 위주로 했다. 좀 더 색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고 취업을 하고 싶었던 나는,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했다. 그러는 가운데 학교에서 일반고 역량 강화 수업으로 제과·제빵반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보통 일반고에서는 국, 영, 수, 탐구 등 수능과 관련된 교과목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동아리 활동 역시 제과제빵 관련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일반고 역량 강화 수업에서 나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과제빵



수업이 개설되었다니 너무 꿈만 같았다.

4월 4일 첫 수업을 하는 날! 토요일이지만 눈이 번쩍 떠졌다. 평소라면 못 잔 잠을 채우느라 시간을 허비했는데 그 날은 달랐다. 오랜만에 빵을 만들게 되어 설레는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제과·제빵은 일반고에서 지도하실 만한 선생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도구와 기계가 없어 학교 옆에 있는 청년 창업자가 운영하는 ‘달지’라는 곳에서 수업이 이루어졌다. 3학년은 나와 친구 단 둘뿐이고 나머지 학생은 모두 2학년이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 선생님은 ‘빵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나와 내 친구를 제외한 후배들은 모두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고 싶어도 학교 시간에 쫓겨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대부분의 제빵학원은 평일반만 있고 주말반이 없어,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사실상 수강이 어려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래서인지 모두들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꽤나 기쁜 모양이었다.

첫 시간 제빵 도구와 각종 기계 교육을 한 후 가장 기본적인 빵인 식빵을 만들었다. 빵을 처음 배운다는 후배들은 밀가루와 재료들을 직접 계량하고 발효해서 성형하고 빵을 굽기까지 곤잘 했다. 그 뒤로 매주 토요일 여러 가지 빵을 만들었다. 심지어 중간고사를 앞둔 주말에는 휴강 하지는 선생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보다 빵을 만드는 것이 즐거워 수업을 이어가자고 했다.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보면 지루하고 잠이 오는데 빵을 만들 때만큼은 오히려 생기 있고 즐겁다는 것이다. 빵이 구워져 나올 때 빵 냄새는 우리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했고, 예쁘게 나온 빵을 볼 때의 성취감은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 컸다. 또한 학원과는 다르게 편한 분위기 속에서 발효시간이나 식히는 시간 등의 남는 시간에는 비빔밥이나 김밥, 떡볶이, 국수와 같은 분식이나 크림 파스타와 같은 것도 해먹으면서 부담 없이 수업을 받는 것도 좋았다.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깔깔거리는 나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슷한 또래가 모여 진행되는 수업은 즐거웠고 웃음이 가득 했으며 활기가 넘쳤다. 매주 베이글과 크림빵, 모카빵 같은 기본적인 빵부터 롤케이크, 티라미스, 초코파이, 데코레이션 케이크와 같은 제과와 응용적인 것을 했다. 그 중에서 특히 초코파이와 모카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선, 초코파이는 전주 한옥 마을이 인기를



끌면서 그곳에서 파는 초코파이가 관광객들의 SNS를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이제는 전주 사람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먹는 제과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코파이가 맛있기는 한데 너무 달아 내 입맛과는 맞지 않았다. 그런 초코파이를 한다고 하니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만들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초코파이를 만드는 과정은 다른 제과보다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갔다. 초코파이 반죽을 만들어 굽고 안에 들어가는 버터크림을 만들고 샌드를 하고 초콜릿을 묻히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하기까지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만든 초코파이를 입에 넣는 순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달지 않아 정말 맛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날씨가 더워 길에 묻힌 초콜릿이 금방 녹아버렸다는 점이었다.

둘째로, 비교적 평범한 모카빵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바로 자격증 때문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빵 자격증 시험에 접수를 했었는데 시험에 나올 빵을 찍어 보자고 하면서 모카빵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았다. 시험을 보는데 더치 빵이라는 품목이 나왔고 더치 빵의 성형(빵의 모양을 잡는 것) 방법은 모카빵과 같이 하면 되는 것이었다. 시험 보기 전에 한 것이라 기억이 잘 났고 자신감도 생겨 익숙한 손놀림으로 빵을 만들었다. 덕분에 자격증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합격자가 발표되던 그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다.

매주 토요일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자율학습을 저녁까지 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이따금씩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잘 선택한 것일까’ 하는 걱정도 들지만 자격증을 바라보면 뿌듯하고 대견스럽고 자신감도 생겨 내 꿈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 다시금 미소 짓게 된다. 또한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과 후배들을 보면서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하는 길이라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강사 선생님께서 첫 시간에 어떤 진로를 결정했는지 물어보셨다. 나의 진로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신 선생님은 일찍 취업을 한 친구들은 낮은 임금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했다. 취업보다는 대학을 진학해서 제과제빵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리를 직접 해 볼 수 있는 외식조리학과를 권유해주셨다. 선생님은 현재 청년 창업자이면서 외식조리학과 학생으로, 고3인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셨다. 그 덕분에 잠시 잊고 있었던 요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 진학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후배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고3 수험생으로서 확실히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업에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반고에서는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의 경우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하고 입시 관련 학원 외에는 주말에 개설된 학원이 없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고 자신들의 꿈을 향한 도전에 확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세 달간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재미있고 유익했다. 너무 일찍 끝나버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 응급 구조사가 되기 위한 나만의 길

유 건 욱  
성서고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TV프로에서 소방관특집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방화복을 입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이 난 건물에 겁 없이 들어가는 소방관을 보며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하는 감탄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폭발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부탄가스 폭발로 저는 오른손 손등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어린 나이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울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 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소방 구급대원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의 성적은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특성화고에 진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제가 부족했던 영어, 수학 과목을 정말 열심히 복습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성적은 중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그 후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소방 구급대원이 되겠다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체제였고, 그것 때문에 저는 늘 무거운 벽돌 같은 것이 누르는 느낌을 받으며 고등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꿈은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찾아본 후, 의료 봉사활동, 독서활동, 직업 체험,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 등에 참여하면서 꿈을 향한 그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후반에는 문과계열 진학을 결정하여 2학년이 된 지금은 인문 사회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보건 · 의료’와는 거리가 먼 계열입니다. 제가 문과계열을 선택한 이유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겁이 나서였습니다. 수학은 저에게 너무나 높은 장벽이었기 때문에 인문 사회 과정을 밟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진학을 원하는 ‘응급 구조학과’는 공통 계열이기 때문에 문과 계열에서도 충분히 진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는 문과계열에 진학을 하였고, 현재 인문 사회 과정에 있는 여러 교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학 등의 과목을 배우지 못하는 것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설하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 중 ‘보건 · 의료 및 간호의 이해’ 특강에 참가 신청을 했는데, 특강을 진행하시는 계명문화대학교 교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문과 계열학생이 보건을 강의 듣는 것에 대해 많이 신기해 하셨습니다. 제가 저의 경험과, 꿈, 또 수학에 대한 저의 울렁증을 말씀해 드렸더니 교수님은 바로 이해하셨고 목표한 꿈을 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현재 제 성적은 그리 좋지 않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삶의 뚜렷하고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폭발 사고, 그 힘든 경험과 유사한 일을 겪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경험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돕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목표는 소방 구급대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 단위 학교 프로그램 중 ‘보건, 의료 및 간호의 이해’ 특강에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진로와 관련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단위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친구들보다 성적이 낮기 때문입니다. 의료 보건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에 많이 참가신청을 하면 제가 성적 때문에 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발기준은 보건·의료 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이었고, 2개의 반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에게 온 기회 덕분에 저에게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제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 및 간호의 이해’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앞으로 소방관 구급대원이라는 목표를 더욱더 분명히 하고 한 계단씩 준비해가면 꿈을 꼭 이룰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꿈을 구체화 했습니다. 반드시 응급 구조학과에 진학하여 먼저 ‘국가 응급 구조사’ 자격증을 딴 후에 중앙 소방학교 소방 구급대원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가파른 계단같이 험난하고 힘들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 속에서 진로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저의 목표를 굳건히 다질 수 있어서 정말로 좋았고 저의 후배들에게도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또 주어져서 후배들도 ‘꿈’이라는 삶의 즐거움을 꼭 찾길 바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 구조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충분한 성적은 아니지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한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조금 낮지만 응급 구조과와 관련된 활동과 대회에 많이 참여하였고, 소방에 관련된 구급 물품 정리, 소방서 내부 청소와 같은 개인적 봉사활동도 참여하는 등 착실히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높은 장벽이 제가 꿈을 이루는 길에 버티고 서 있지만 그 장벽을 넘어서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조금 더 노력하여 성적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저에게 확신을 주신 선생님과 교육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나드세상

배 인 지  
대전도안고등학교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시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사실 그 전부터 ‘고등학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걱정이 앞섰다. ‘중학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는데, 뒤처지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심지어 주위에서 들려오는 고등학교는 일일이 챙겨주고 도와주지 않으니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에 괜히 긴장되고 무섭기까지 했었다. 그런 두려움 속에 들어간 학교라는 마치 거대한 집합 안에서 나는 그저 나 스스로를 그 집합을 이루는 무수히 많은 ‘원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나는 미래에 대한 꿈도 모호해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건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고등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기주도 학습’이었다. 물론 중학생이었을 때도 나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했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정은 달랐다.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14시간을 지내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이었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이제는 무려 14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한다니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특히 말로만 들어왔던 야간자율학습. 세 시간 정도를 혼자





계획하고 혼자 공부해야한다는 이 변화의 혼돈 속을 정말 홀로 헤쳐가야 하는 것일까 막연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점점 학교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제껏 내가 한 걱정은 괜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는 걱정했던 것처럼 무섭고 막연한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앞으로의 내 꿈과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격려해주는 희망적인 곳이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학습플래너’였다. 사실 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에 많이 약했다.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어려웠고 제대로 된 계획이 없어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드물었었다. 하지만 고맙게도 학교에서 일 년 단위의 플래너를 전교생에게 제공해 주었다.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학기 초에는 담임선생님께서 주기적으로 첨삭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그토록 걱정했던 야간자율학습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어와 수학 야간심화학습을 신청해 매주 두 번씩은 야자 1교시에 영어와 수학 심화수업을 들어 더욱 알찬 자율학습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학년이 된 지금도 매주 수요일 국어 야간심화수업을 듣는다. 작년 수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반면 지금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조를 이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 조의 조장으로서 조원들과 문제 푸는 방식을 공유하고 서로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에 뿌듯하다.

아무 것도 모르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로 2년, 그동안 내가 학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리라 중점을 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동아리 활동이다.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막연하고 두려웠었던 와중에도 기대되고 설레던 부분이였다. 고등학교에 가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있고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기다려졌었다. 입학 후 처음 들어간 창체 동아리는 ‘솔로몬’이라는 법정동아리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사건들을 주제로 모의재판이나 자유토론을 하며 사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동아리였다. 그 곳에서 만난 선배들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고 토론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와주셨다. 비록 지금 창체동아리는 없어졌지만 작년 부원들끼리 비창체동아리로 솔로몬을 부활시켜 최근에는 헌법 사랑을 주제로 UCC를 제작해



공모전에도 참가하는 등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록 희망진로가 검사나 변호사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느라 무관심했던 사회의 여러 일들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생각들을 비슷한 또래들과 나누고 배우는 그 모든 활동들도 앞으로의 내 미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한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해 온 동아리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도안기자단’이라는 학교의 정보망 같은 존재도 있다. 솔로몬 동아리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뤘었다면 도안기자단에서는 교내의 여러 소식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지를 통해 전달하는 일을 한다. 학교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고 때론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조사한 것들을 기사로 작성해 매달 주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해왔다. 교내 소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생각을 알려 사제 간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동아리라는 자부심을 갖고 2년 째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다. 덕분에 두렵기만 했던 학교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갖게 되었다.

2학년이 된 후로 새로 가입한 동아리들도 꽤 많다. 그 중 ‘인문학과수꾼’이라는 창체동아리는 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인간의 도덕성, 이상적인 사회 등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에 대한 책이나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글로 쓰고, 토론하며 생각을 한층 깊고 넓게 해주는 동아리이다. 특히 삶에 대한 태도에 관해 토론할 때는 서로의 삶의 경험을 많이 나누고 조언과 격려, 위로 등을 주고받으며 뭔가 따뜻하고 위안이 된다는 느낌에 울컥한 적도 있었다. 덕분에 글쓰기도 많이 배웠고 무엇보다 생각의 틀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 동아리가 아니었으면 생각해볼 일이 없었던 주제들도 깊게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나’를 알아가고 찾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동아리 시간이 끝날 때마다 한층 성숙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 외에도 오디오북을 녹음해 시각 장애우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아리, 한국사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토론하는 동아리,

수학을 일상생활에서 찾아 재미있게 풀이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너무 많아 벅차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다양한 성격의 동아리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폭넓은 지식과 시각을 갖게 된 거 같아 더 좋다.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나에게 동아리들은 내 흥미와 장점, 적성 등 ‘나’를 알게 해주고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이렇게 나는 지금 하루하루 알차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며 성장하고 있다.

고등학생이면 이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내 장래희망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위에서 말한 활동들도 물론 내 진로에 크게 도움이 되고 둘도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다. 하지만 내 장래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따로 있었다. 1학년 역사 수업 중 한국사와 관련된 주제로 PPT를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 때 우리 모둠의 주제는 ‘숙종의 봉당 정치’이었고 나는 이 주제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내기 위해 장희빈과 인현왕후, 숙종의 로맨스를 결합시켜 ‘숙종의 로맨스, 봉당 속에 풍당’이라는 제목으로 반 친구들 앞에서 봉당 정치를 설명했었다. 그 때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에 대한 꼬덕임이나 대답 같은 반응을 보며 교육자에 대한 꿈을 굳게 다지게 되었다. 또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한 달 정도 1:1 멘토-멘티 활동에서 멘토로서 친구를 도와주는 기회를 가졌었다. 오늘의 목표, 숙제, 이번 주의 목표 등을 나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친구가 문제를 풀 때마다 묘하게 뿌듯하고 즐거웠다. 한 달 동안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활동이 오히려 진로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있었던, 내가 더 도움을 받은 일이 되었다. 그렇게 걱정 가득했던 고등학교에서 지금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꿈과 행복을 하루가 다르게 쌓아가고 있다.

진로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선생님들과 부모님께서는 미래의 꿈을 이룬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하셨다. 멀리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 가까이는 계획한 공부를 다 하고 시험이 끝난 후 웃고 있을 내 모습. 내일의 행복할 내 모습이 오늘의 나를 더 열심히 움직이게 한다. 물론 꿈을 이루기까지 많이 실패하고 좌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좌절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어떤 시련이더라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은 계속 해보고 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성공에서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라는 거대한 집합 속의 나는 일개 ‘원소’에 불과하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큰 집합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많은 원소들을 얻어 하나의 ‘집합’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그렇게 성장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학교를 포함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학교라는 집합 밖으로 나오면 세상, 전체 집합을 향해 무궁무진하게 더욱 팽창할 것이다. 학교는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많은 것들을 담아주고 나를 더 무한히 성장하게 만들어 준 공간이다.



## 2015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

### 기획

오성배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박상화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관

김종민 교육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 개발·검토

이재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양성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 디자인

디자인프리즘 02. 2264. 1728

---